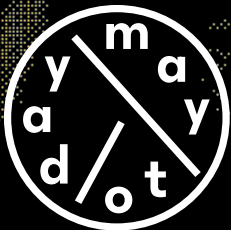


MaytoDay

민주주의의 봄
Spring of Democracy

아트선재센터
Art Sonje Center

2020. 6. 3. – 7. 5.



민주주의의 봄
Spring of Democracy

아트선재센터
Art Sonje Center

2020. 6. 3. – 7. 5.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Yong-Seop Lee
The Mayor of Gwangju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18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6·25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5·18 정신은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하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되었습니다.

5·18은 지금도 우리 안에 ‘광주 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서로 간에 피를 나눴고, 주먹밥과 생수를 나누며 지켜냈던 광주 공동체 정신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도시에 병상 연대를 제안하는 나눔과 연대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 이름 뒤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는 우리 광주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정신이 되어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On May 18, 2020,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itnessed its 40th anniversary.

May 18 is a painful incident that has resulted in the highest number of victims since the Korean War. However, with the May 18 spirit's revival in the form of June Democracy Movement, and again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7, the May 18 spirit that led to a firm establishment of democracy in Korea has now become a significant marker in the nation's history.

May 18 is still alive within us as the 'spirit of Gwangju'. This communal spirit, which manifested in the form of sharing blood, rice balls, and bottled water during May 1980, has transformed into a practice of hospitality and solidarity. Fighting against the difficulties imposed by COVID-19, for instance, neighboring cities of Gwangju are sharing hospital beds in solidarity. Gwangju is the only city in the world where the word 'spirit' is applied to describe a city.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광주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포용의 5·18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 국민, 전 세계인이 5·18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마음 한뜻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5·18 40주년 특별전 «메이투데이»가 소통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기획자들과 수많은 작가들이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뿌리가 된 5·18 역사를 주목했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켜 소통과 연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독일, 아르헨티나, 베니스에서 함께 진행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5·18 역사를 배우고, 5·18 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곧 5·18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척 어렵게 준비한 전시입니다. 그만큼 이 안에 녹아든 수많은 기획자들과 작가들의 열정과 땀이 값진 결실로 빛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신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이사님과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봄» 전시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developed into Gwangju spirit, guiding the world towards democracy and human rights.

On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Gwangju is offering a new vision. We, the citizens, will move from May 18 of the past to May 18 of the future, from May 18 of Gwangju to May 18 of the world, and from May 18 of anger and agony to May 18 of harmony and tolerance. We hope that the whole nation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continue to pay respects to the noble spirit of May 18 and enliven the spirit, together.

The special exhibition *MaytoDay* organized to commemorate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will be the medium for communication. Curators and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engaged with the history of May 18, which also relates to the roots of democracy in Asia, and expressed them in the form of art. By doing so, they have generated a platform for discussion and solidarity. This project will take place in locations as diverse as Taiwan, Germany, Argentina, and Venice, allowing a wider international audience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May 18 and thereby create an opportunity to simultaneously inherit and develop the spirit of May 18 into a *zeitgeist*. This will also mark a new beginning in the globalization of May 18.

Great efforts have been put into the preparation of this exhibition despite various obstacles posed by COVID-19. And we really hope that the passion and all the hard work the curators and the participating artists have put into this project can bear their fruits. Most importantly of all, we would like to give our sincere appreciation to Sunjung Kim, the president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as well as the staffs and all those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preparation of this project.

We also thank all of you who came to visit this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June 2020

«메이투데이»를 구상하며

김선정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메이투데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2년에 걸쳐 선보이는 다국적 특별 전시 프로젝트이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립 이래 열두 차례 비엔날레를 개최하며 광주에서 태동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의 예술가들과 공유하고 확장시키며 중요한 현대미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민주화운동 관련 작업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전시로 재맥락화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메이투데이»는 제목이 시사하듯 5월(May)의 일상성(day)을 이야기하고 그 시점을 현재(today)로 되돌려 보고자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민주주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광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해외 도시들의 이야기를 동시대 예술과 전시의 언어를 통해 들려주도록 하였다. «메이투데이»는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도시의 민주화 이야기와 여러 장소와

MaytoDay

Sunjung Kim
President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Organized by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to commemo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aytoDay* is a multi-site exhibition project that will unfold across cities around the world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Inaugurated in 1995, the Gwangju Biennale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rominent contemporary art exhibition platform while seeking to engage local and international audience in dialogues about the civil spirit of Gwangju, widely known as the May 18 spirit. *MaytoDay* is more than just part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s on-going archiving project to research its founding mission and history of memorializing the May 18. It is a collaborated attempt to shed new light on the legacies of the May 18 from a transnational perspective and in light of our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landscape. We invited curators to curate exhibitions in Buenos Aires, Cologne, Taipei, and Seoul by examining the city's local contexts and histories

시간을 연결하고 교차시키면서 민주화 역사를 추적할 새로운 지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메이투데이»는 독일, 대만, 아르헨티나를 한국과 연결시켜 5·18의 경험을 배우고, 공감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 쾰른에서 최빛나가 기획하는 «광주시간»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던 광주시민미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목판화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르완다 출신의 작가 크리스티앙 니얌페타의 작업과 함께 임시적이고 대안적인 학교를 구현한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관두 미술관에서 황젠홍이 기획하는 «오월 공-감: 민주중적중류»는 공감을 키워드로 홍콩의 민주화운동과 광주의 5·18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전시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소피아 듀런과 하비에르 빌라가 기획하는 «미래의 신화»는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와 민주화 역사를 광주의 5월 어머니회와 연결시킨다.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의 봄»은 우테 메타 바우어가 김준태 시인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전시로, 5·18 관련하여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제작되었거나 발표되었던 작업들을 재조명하고 민중미술과 5·18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함께 선보인다. 또한, 전시 안의 전시로 평론가이자 목판화 전문가인 김진하가 기획한 목판화 섹션은 1980년대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언론 통제하에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미디어 역할을 했던 목판화와 출판 작업들을 살펴본다.

이 네 개의 전시는 2020년 9월 광주에서 재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전시에서는 2018년과 2020년 광주비엔날레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마이크 넬슨,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치하루 시오타, 카데르 아티아의 작업들 또한 구 국군광주병원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동학에서부터 추적하는 애니메이션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창립부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발신지 역할을 해왔다. 1995년 제1회 비엔날레부터 참여 기획자와 작가들은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5·18 정신에 대해

of democratization in response to Gwangju's May 18. The project title 'MaytoDay' signifies our two-fold aims to draw attention to the everydayness and micro-level histories of the May 18 and to situate the discourse amidst us living today.

MaytoDay comprises of exhibitions curated and mounted in different cities in dialogue with Gwangju. In Cologne, Binna Choi is curating *Gwangju Lessons*, an exhibition investigating the activities of the Gwangju People's Art School (1983-1992) and it will include Dutch-Rwanda artist Christian Nyamepta's work on the School's woodcut productions. In Taipei, Chien-hung Huang is curating *May Co-sensus: Demo-stream in Democracy* which considers cases such as Hong Kong and Gwangju to examine how streams of transformation emerge from connections rather than differences. In Buenos Aires, Sofia Dourron and Javier Villa's co-curated *Myths of the Near Future* will be mounted in the former Navy School of Mechanics, which was used as a detention and torture center during Argentine's military dictatorship, and explore traumatic experiences and resistance strategies shared between Argentina and South Korea for example highlighting the role of women. In Seoul, Ute Meta Bauer with Kathleen Ditzig curate *Spring of Democracy* which, with presentations of artworks and archival materials, examine the ways in which previous Gwangju Biennale participating artists have addressed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Seoul exhibition, there will also be a special section curated by Jinha Kim featuring woodcut prints and other media from the 1980s that served as mediums to resist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promot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The four exhibitions will be restaged in Gwangju in September 2020. And during the Gwangju exhibition, works by Mike Nelson, Apichatpong Weerasethakul, and Kader Attia, which have been produced upon commission from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in 2018, will be exhibited again in

다루어 왔고, 이는 광주비엔날레만의
특성이자 차별성이기도 하다. «메이투데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선보였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작품들을
연구하고 전시로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와 5·18민주화운동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 이는 더 나아가
비엔날레라는 전시 형태의 역할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5년 동안
축적되어온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기록을
꺼내어 재조명하고, 더불어 우리 모두의 기억과
역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준 우테 메타
바우어, 최빛나, 황젠홍, 소피아 듀런과
하비에르 빌라에게 감사드리며, 박선양, 임수영,
문주화, 문경원, 함승우, 이수진씨를 비롯한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In addition, Ho Tzu Nyen's new
animation work tracing Korea's history of
mobilization towards democracy will be
on show along with Chiharu Shiota's site-
specific installation at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s chapel as
new commissions from the Biennale.

The May 18 spirit has been the
core theme of the Gwangju Biennale
since its founding in 1995.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curators have
consistently found inspirations from the
city's history of civil resistance, and this
is what anchors the Gwangju Biennale's
identity and distinguishes it from many
other international biennales. I hope
the 'MaytoDay' project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look back upon
and research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Gwangju Biennale's
history. I also hope it will bring to us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role of
biennale and the social role of art. This
project means more than an attempt to
reexamine history and documents; it is a
wish to restore memory and history for
our present and future.

I thank Ute Meta Bauer, Binna
Choi, Chien-hung Huang, Sofia Dourron
and Javier Villa, Serene Pac, Sooyoung
Leam, and Juhwa Moon for partaking in
this journey.

I would like to also thank Serene
Park, Sooyoung Leam, Juhwa Moon,
Moon Won, Seung-woo Ham, Soojin Lee
as well as the Gwangju Biennale archive
team.

민주주의의 봄 - 광주의 정신

우테 메타 바우어
«민주주의의 봄» 큐레이터

나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특히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광주비엔날레와의 작업을 위해 광주를 찾을 때마다 광주의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광주의 정신에 대한 경탄은 커져만 갔다. 그러기에 김선정 대표의 초청으로 이번 «메이투데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을 기획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비극 속에 태동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주주의의 봄»은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사료와 작품을 한데 모았다. 이번 전시는 기억과 역사의 대화적 관계, 그리고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조명한다.

본 전시는 일정 부분 페미니즘 이론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기본 자유라 여겼던 저항과 문제 제기의 자유를 지향한다.¹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다. 처음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과 이에

Spring of Democracy - The Gwangju Spirit

Ute Meta Bauer
Curator of *Spring of Democracy*

I have been visiting South Korea and in particular Gwangju for almost 20 years. With each visit and collaboration with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my understanding of and admiration for the Gwangju Spirit has only grown. I am most humbled by Sunjung Kim's invitation to be part of *MaytoDay*. To be asked to develop an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s an honor.

This movement, which grew out of a traumatic moment, resonates far beyond Korea. *Spring of Democracy* brings together a diversity of historical materials and works of art at the intersection of history and personal memory. The exhibition demonstrates the dialogical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history, and democracy as a process that is always in the making.

The exhibition to a certain extent points to what feminist philosopher Julia Kristeva has described as a foundational version of freedom: a freedom to

함류한 광주 시민들은 정의를 요구하고 군사 독재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예술은 열흘간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 그려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참혹한 경험에서 탄생한 민중미술과 목판화 운동은 군사정권이 저지른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후배 예술가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 민중미술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기본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총 12회의 역대 비엔날레에서 전 세계 예술가들은 이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이번 «민주주의의 봄»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이 독재와 정부의 탄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는 시민의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정치와 권력남용을 적극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시는 1980년 민주화운동과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시각을 표현해온 세 세대의 작가들을 아우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카이브 속의 종이는 변색되고 사진은 희미해지고 색이 바랜지 모르지만, 이 작품들을 통해 역사는 더욱 생생하고 절절하고 매혹적이게 된다. 예술작품은 과거에 대한 증언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투사하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봄»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태동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의식의 증언이다.

«민주주의의 봄» 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색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다. 광주시의 공식 색상 중 하나인 주황색은 빛과 생명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이지만,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시장의 쪽빛 배경은 지난 세기 정치운동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젤라틴판 전단지들 연상시키는 기제이다. 짙은 남색은 또한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잔혹한 사건들로 사회에 각인된,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의 상흔을 상기시킨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revolt, to call things into question.¹ Such freedoms to have a voice and to dem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re human rights. First called for by students who were later joined by the citizens of Gwangju, who together demanded justice and an end to autocratic military rule.

Ar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ocumenting and later imagining the 10 days of civic uprising in Gwangju. *Minjung* art [people's art] and the woodcut print movement that grew out of this traumatic experience were instrumental in creating awareness around the world about th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military. Since then, a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have followed in these footsteps and kept the *minjung* art movement alive.

The Gwangju Biennale's underlying mission is imbricated in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over its 12 editions,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created works in response to that history. *Spring of Democracy* can only present a limited selection, but I hope these works allude to the necessity of civic courage to stand up against authoritarianism and state repression. It is important to note how deeply invested many South Korean artists are in applying their practice to comment upon politics and abuses of power. The presented works encompass 3 generations of artists that have responded deliberately to the 1980 uprising but also speak to South Korea's more recent political landscape. While papers may yellow and photographs grow faint or corrode over time in archives, these works of art make history vivid, poignant, and gripping. They are testaments not just to the past, but are living memories that project into the future. *Spring of Democracy* thus bears witness to an ever evolving historical and political awareness generated by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colors employed throughout *Spring of Democracy* are a homag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range is one of the official colors of Gwangju city and it symbolizes light and life. While we commemorate the lives that were sacrificed, it is equally

현장에 있었거나 그 후 수십 년간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몇몇 해외 기자들이 보관해온 사진과 영상, 기타 기록 자료들이 함께 전시된다.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잔학 행위와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예술가들과 용감한 언론인들 덕분에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봄»은 이들의 용기를 기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기꺼이 나눠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민주주의의 봄» 전시를 기획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에서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해 직접 들려주신 오월민주여성회 이윤정 교수님, 조은경 작가님, 이담금 님께 감사한다. 또한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오월어머니집 정현애 이사장님과 이명자 관장님께 감사를 표한다.

이 기회를 빌려 (재)광주비엔날레의 김선정 대표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내게 «메이투데이» 프로젝트의 대장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담론에서 그간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역할과 그 의의를 모색하는 좌표를 제시해 주었다.

시간을 내어 작품과 기억을 공유해준 강연균, 조진호, 메이홀의 주홍 작가님을 비롯한 민중 예술가들께도 감사드린다.

영화평론가 유운성 교수님, 이택광 교수님, 김항 교수님, 역사학자이자 기획자인 유경남 연구자님, 미술사학자 이수진 교수님, 그리고 한송 힐트만과 송현숙 작가님 등 다년의 연구조사를 통해 축적된 교양과 견해를 공유해 주시며 도움을 주신 각계 전문가들께 감사를 표한다.

배영환, 백승우, 위르겐 베트람, 쿠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 홍성담, 권승찬, 위르겐 힌츠페터의 가족과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박사, 강연균, 이불, 이창성, 임민욱, 나경택, 노순택, 오형근, 박태규, 미르세아 수치우, 팀 서록을 포함해 이번 전시에 기여해준 모든 작가 분들과 기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나아가 비평가이자 목판화 연구자인 김진하 큐레이터와 함께 민중의 삶과

important to celebrate the fact that this civic uprising paved the way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indigo backdrops in the exhibition are a reference to hectographs used by political movements across the globe to disseminate their messages. The indigo calls to mind imprints of the lasting and residual trauma that such brutal incidents leave on a society.

The artworks presented are juxtaposed by photographs, video footage and other archived materials of the journalists present in Gwangju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r those who wrote about it over the following decades. While the military junta tried to repress the spread of any information about their brutal actions and the civic uprising, it has been the work of artists and courageous journalists that have ensured that the world was made aware. *Spring of Democracy* also celebrates their courag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pring of Democracy* could only have happened through the generosity of those willing to share their first-hand memories of May 18. I am grateful for the privilege of meeting Prof. Youn-jung Lee, Eun-kyung Cho, Dang-keum Lee and learning about their experiences and community efforts. I also appreciate the time and insight that Myung-ja Lee and Hyun-ae Jung of May Mothers House shared with me.

I am particularly grateful to Sunjung Kim, the president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who not only entrusted me to be a contributor to the *MaytoDay* project but who also directed me to the lesser-known aspec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pecifically the important part that women played in this civic uprising.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minjung* artists that I was able to meet in person and who shared their work and memories with me: Yeon-gyun Kang, Cho Jinho, and Joo Hong of the May H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individuals who shared their perspectives and research with me: film

목소리를 비추어 당대를 기록하고 증언했던 광주의 목판화를 이번 전시의 한 섹션에서 보여줄 수 있어 감사하다.

덧붙여 5·18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님, 박진우 연구실장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시 준비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 온 (재)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의 예술디자인미디어대학 박사 과정의 캐슬린 딯지그와 함께 불철주야 일해 온 박선양 프로젝트 매니저와 임수영 코디네이터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민주주의의 봄»을 후원해준 아트선재센터의 김해주 부관장과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광주비엔날레,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과, 광주 정신을 알려준 광주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ritic Un-seong Yoo, Prof. Alex Taek-Gwang Lee, Prof. Kim Hang, curator and historian Kyung-nam Yoo, art historian SooJin Lee, as well as Han-Song Hiltmann, and artist Hyun-sook Song.

My gratitude goes to the artists and journalists who have contributed to this exhibition; Bae Young-hwan, Seung Woo Back, Jürgen Bertram,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Hong Sung-dam, Seung-chan Gwon, the estate of Jürgen Hinzpeter, Dr. Edeltraut Brahmstaed, Yeon-gyun Kang, Lee Bul, Chang-Seong Lee, Minouk Lim, Kyung-taek Na, Suntag Noh, Heinkuhn Oh, Tae-kyu Park, Mircea Suciú, and Tim Shorrock. I am also grateful that this show was able to present a selection of woodcut prints from Gwangju by by critic and art historian, Jinha Kim entitled *A Testimony of Resistance*.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thanks to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5·18 Archive for sharing the materials in their care, namely the directors Jin-tae Cho and Jin-woo Park.

I owe the staff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who have worked tirelessly on this project my utmost thanks. I am especially indebted to Kathleen Ditzig, one of my NTU ADM PhD candidates, who together with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s Serene Pac and Soo-young Leam, provided me with many hours of late-night work.

I am grateful to Art Sonje Center: its deputy director, Haeju Kim, and her team for hosting *Spring of Democracy*.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Chunghak, Head Monk of Mugaksa Temple, and the people of the city of Gwangju for introducing me to the Gwangju Spirit.

1 Julia Kristeva, and Philippe Petit. *Revolt, She Said: An Interview by Philippe Petit*. Los Angeles: Semiotext(e), 2002.

민주주의의 봄

우테 메타 바우어
«민주주의의 봄» 큐레이터

5·18민주화운동은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20세기의 유일한 사례로 기념된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지속된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화 능력을 보여주었다.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 처음 발현된 광주 시민들의 이러한 능력은 그 후 광주의 민주적 통치와 군대의 재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었다. 5월 27일 결국 군대가 다시 광주를 장악하게 되었지만, 이 열흘의 시간은 1980년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반독재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1987년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직접선거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후 199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 학살의 일부 책임자들이 내란 및 폭력 교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과 이 운동이 보여준 시민의

Spring of Democracy

Ute Meta Bauer
Curator of *Spring of Democracy*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elebrated as one of the rare instances in the 20th Century where ordinary people came together to govern themselves.¹ The 10 day uprising, which lasted from May 18 to May 27, 1980 and paved the way to democracy, evidenced the people's ability to self-organize spontaneously, first in the heat of the moment and later in the democratic governing of the city and in resisting the military's return. Although the military returned to Gwangju on May 27, these 10 days inspired the people to shape broad resistance across the country in opposition to the dictatorship in South Korea during the 1980s. This led eventually to demonstrations in Seoul and other South Korean cities in 1987 that would usher in democratic elections. Later, in the 1990s, through the exceptional process of transitional justice, some of the perpetrators who took part in the Gwangju Massacre were finally convicted of treason and sediti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저력은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한 재단이다. 이후 수십 년간 광주비엔날레는 깊은 상처가 된 5·18을 기억하기 위한 신작들과 전시를 선보여 왔다. «민주주의의 봄»은 역대 광주비엔날레 및 특별전, 5·18민주화운동 기념 전시에서 소개됐던 작품들을 한데 아우른다.

두 층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작품들과 기록 자료들이 나란히 소개된다. 3층에서는 당시 한국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순간들과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주는 울림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홍성담의 목판화 작품들(1980년대)과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I>(1981) 등 민중미술 작품들은 거리에 흩뿌려진 피를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이 잔혹하고 치열했던 날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록한다. 임민욱의 <네비게이션 아이디>, <X가 A에게>(2014)와 루마니아 작가인 미르세아 수치우의 <먼지에서 먼지로>(2014) 등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기록 언어를 구현한다.

2층에서는 비평가이자 미술사가인 김진하 큐레이터가 특별 기획한 광주의 역사적 목판화에서부터 영정사진을 통해 기억과 망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노순택 작가의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 언어와 기록 공유의 언어들을 소개한다. 아카이브를 방불케 하는 전시실 중앙에서는 8월 27일에서 11월 9일 사이에 신문에 인쇄된 이미지로 구성된 백승우 작가의 <연상기억법>(2018)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문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기रो에 선 한국>을 통해 신군부의 잔혹함을 서독 전역뿐 아니라 해외 파견 한국인 근로자들에게까지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소장했던 영상과 사진도 전시된다. 미국의 팀 셔록 기자가 집대성한 자료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군부독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이 자료들은

of 1980 and its memory of what a people's movement can achieve serve as a continued source of inspiration.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95 to commemorate the importance of this movement that took place in their city. Over the years, the biennale has commissioned exhibitions and works of art to remember these deeply traumatic 10 days. *Spring of Democracy* brings together works from various iterations of the biennale, but also from its satellite and May 18 Anniversary exhibitions.

Organized across two floors, this exhibition presents works of art juxtaposed with archival materials documenting the 1980 uprising. Starting on the third floor, viewers are invited to walk back in time, weaving their way between photographs taken by Korean journalists during the uprising and works of art that revisit various moments of this important civic movement and its resonance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Works of *minjung* art, such as Hong Sung-dam's woodcut prints (1980s) or Yeon-gyun Kang's *Between Heaven and Earth I* (1981), document the first-hand experience of these intense days of brutality, literally depicting the blood on the streets. Art works made in the 1990s and 2000s for the Gwangju Biennale such as *Navigation ID, From X to A* (2014) by South Korean artist Minouk Lim and *Dust to Dust* (2014) by Romanian artist Mircea Suciuc, would draw from diverse archival materials creating their own language of the archival.

The second floor juxtaposes different languages of archiving and dissemination, ranging from a selection of historical woodcuts from Gwangju curated by critic and art historian Jinha Kim to Noh Suntag's *Forgetting Machines* (2006-2020) which reflects upon memorialization through funerary photography. In the center of the room is an archive-like workstation featuring artist Seungwoo Back's *A Mnemonic System* (2018), a series of images published over 54 days in the daily newspaper *Chonnam Ilbo* (Gwangju), literature on the uprising, footage and photographs by German journalist

대부분 5·18 기록관에서 보관 중이며 일부는 개인 소장품이다.

<광주이야기>(1996)는 사진작가 오형근이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꽃잎>(1996)의 촬영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작품으로, 두 층에 걸쳐 전시된다. 고문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한국의 한 하급 병사에 대한 가상의 영화 포스터 <광주탈출>(2002)도 2층과 3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봄»은 관람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그저 단순한 역사적 순간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작품과 역사적 사료를 나란히 선보이는 이 전시는 역사와 기억의 미묘한 경계를 허물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Jürgen Hinzpeter whose film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brought this brutality by the military to televisions in West German households but also to the Korean foreign workforce sent abroad. An extensive dossier compiled by the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introduces the role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played in South Korea's military dictatorship. The featured documentation of the uprising now resides with the 5·18 Archive, but also can still be found in private collections.

Gwangju Story (1996), stills by South Korean photographer Heinkuhn Oh taken on the film set of *A Petal* (1996) that re-enacted the uprising, are found across both floors. Also to be seen across both floors are *Escaping Gwangju* (2002), posters of a fictional film about a low ranking soldier in the South Korean army attempting to escape the memory of torture.

Spring of Democracy encourages the viewer to not only review the Gwangju Uprising as a historic moment in the past, but also to use this 40th anniversary as an opportunity to look towards the future of democracy. Presenting works of art alongside historical documentation allows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uprising to unfold, dissolving the fine line between history and memory.

간추린 5·18민주화운동 연표

이 연표는 광주광역시 사료편찬위원회에서 최초 발행하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2017년 12월에 재발행한 『5·18민주화운동』과 조지 카치아피카스 저서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민중봉기 제1권: 20세기 한국의 사회운동』(PM출판, 2012)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980. 5. 15.
서울 소재 30개 대학교 학생 7만 명을 비롯해 10만 명이 저녁까지 가두 시위

1980. 5. 16.
광주 햇불 행진

1980. 5. 17.
계엄령 제주도로 확대. 특전사 7여단 광주 투입. 경찰, 전국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연행

1980. 5. 18.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 활동 금지, 전국 대학 휴교령. 공수부대, 전남대 점거. 전남대 학생들, 특전사에 투석전 전개, 5·18민주화운동 시작

1980. 5. 19.
11공수여단 광주 배치. 탱크 및 화염 방사기 사용. 군대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시위 확산

Abridged Timeline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timeline is compiled from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first published by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Historiography Commission and republished by the 5-18 Archives in December 21, 2017. George N. Katsiaficas, *Asia's Unknown Uprisings Volume 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PM Press, 2012.

May 15, 1980
100,000 people protest in Seoul, of which about 70,000 students from 30 Seoul universities hold street demonstrations late into the evening.

May 16, 1980
Torchtlight parade in Gwangju.

May 17, 1980
Martial law extended to Jeju. Seventh Special Warfare Brigade sent to Gwangju. Nationwide police roundup of activists.

May 18, 1980
Martial law is expanded to the entire country, political activities banned and universities shut down. Paratroopers occup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NU). CNU students throw rocks at the 7th Special Attack Brigade and the demonstrations in Gwangju begins.

May 19, 1980
The military sends the 11th Paratroopers Brigade into Gwangju. Tanks and flame-

1980. 5. 20.
3공수부대 및 20보병사단에서 추가 병력 투입. 택시 및 버스 기사들, 200여 대의 차량을 이끌고 금남로에서 오후 6시 30분경 차량 시위 전개. 오후 9시 50분 MBC 방송국 방화

1980. 5. 21.
오전 10시 19분 세무서 방화. 아시아자동차 근로자들, 저항 현장에 수십 대의 차량 제공 지원. 불교 신자들, 석가탄신기념일 공양 광주에 제공. 오후 1시경,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 최다 사망자 발생. 오후 5시 30분경, 계엄군 도청에서 철수. 시민군 도청 점거

1980. 5. 22.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및 전라남도 전역으로 시위 확산. 백악관, 시위 진압 결정

1980. 5. 23.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광주 시위 진압을 위한 한국군 동원에 동의. 10만 명의 시민이 심의를 위해 민주광장 집결

1980. 5. 24.
시민들, 광주 해방을 선포하고 매일 범시민 쫓겨대회 개최

1980. 5. 25.
계엄군, 광주시를 봉쇄하고 민간인 학살

1980. 5. 26.
시민 수습대책위원회, 계엄사 관계자들과 협상

1980. 5. 27.
계엄군 병력 2만 명, 광주 시내 및 도청 재점거, 무수한 인명 피해 발생

throwers are used and there are more protests against the army's excessive use of force.

May 20, 1980
More troops arrive from the 3rd Paratroopers Brigade and the 20th Infantry Division. Taxi and bus drivers lead a 200-vehicle demonstration at Geumnam Street. MBC television station burnt.

May 21, 1980
Tax office burnt. Asia Motors workers help deliver dozens of vehicles to the resistance. Buddhists bring Buddha's birthday celebration meal to the city. Military opens fire on Geumnam street at 1pm and paratroopers open fire in a coordinated fashion. May 21 becomes the deadliest day of the uprising. Military driven out of Provincial Hall. The Citizens' Army occupies the Provincial Hall.

May 22, 1980
Protests spread to neighboring cities Mokpo, Naju, Hwasun, Haenam and through South Jeolla. White House meeting decides to suppress the uprising.

May 23, 1980
General John Wickham, commander of the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 agrees to the mobilization of Korean Troops to suppress the demonstrations in Gwangju. More than 100,000 people gather for deliberations in Democracy Plaza.

May 24, 1980
Citizens declare Gwangju liberated and hold daily mass rallies.

May 25, 1980
Martial law troops impose a blockade and kill civilians.

May 26, 1980
The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negotiates with Martial Law officials.

May 27, 1980
20,000 troops retake the city and Provincial Hall, resulting in much bloodshed.

- 이창성 ① Chang-seong Lee
- 권승찬 ② Seung-chan Gwon
- 오형근 ③④ Heinkuhn Oh
- 1980년 5·18민주화운동 ⑤ Press photographs of May 18
- 보도사진 Democratization Movement
- 박태규 ⑥ Tae-kyu Park
- 홍성담 ⑦⑧ Hong Sung-dam
- 미르세아 수치우 ⑨ Mircea Suci
-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⑩ Press photographs featuring
- 기자들을 담은 보도사진 journalists who documented
- the May 18 Democratization
- Movement
- 임민욱 ⑪ Minouk Lim
- 쿠어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 ⑫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 이창성 ⑬ Chang-seong Lee
- 강연균 ⑭ Yeon-gyun Kang
- 이불 ⑮⑯ Lee Bul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⑰ Press photographs featuring
- 일상과 동지애를 담은 보도사진 the everyday lives of
- Gwangju citizens and their
- camaraderie during the
- uprising
- 배영환 ⑱ Bae Young-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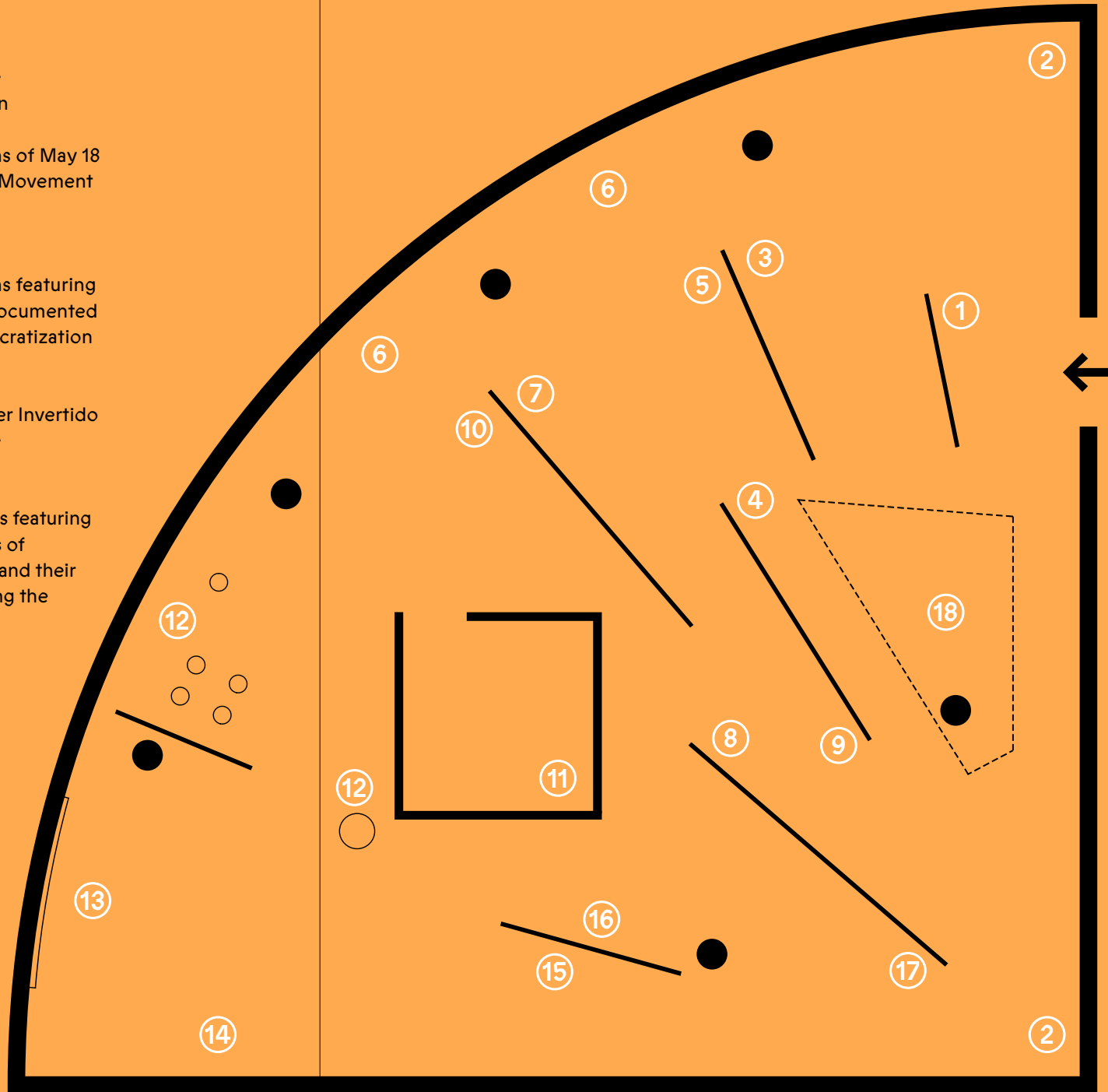




사진-008_800522 점거된 도청앞. 금남로-13
 사진, 1980. 5. 22.
 5·18기념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불» (2020) 전시의 일환으로
 배너에 인쇄

*Photo-008_80052 Provincial
 Hall.Geumnam street-13
 Photograph, 22 May 1980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hoto transferred on banner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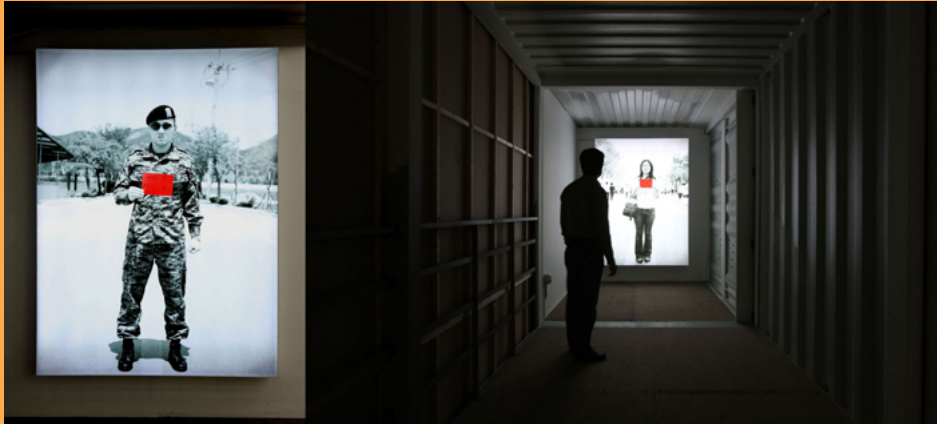
지금은 5·18민주광장으로 불려지는
 전남도청 광장에서 전개된 시민들의 집회는
 5·18민주화운동을 규정하는 장면이다. 첫
 집회는 22일 오전 계엄군을 시내에서 몰아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결하면서 개최됐고 그
 후 5일간 수차례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는 평화적이었고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구현한 모습이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다. 광장에서의
 쫓겨나기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지원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했으며, 이곳에서
 시민들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이기도 했다.

광장은 광주시가 하나의 집합체로서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계엄군에 무기를 반납하는 대가로 수감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협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광장에서 광주 시민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정부의 사과, 전두환 구속이라는 민주화운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Popular assemblies that took place
 at Provincial Hall square, which is
 now called Democracy Plaza, were
 a defining featur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first occurring spontaneously on the
 morning after the military had been
 driven out of the city by the people.
 Seven rallies were held over the course
 of five days.

The rallies were peaceful
 and enacted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 would gather
 and those who wanted could step
 up to a microphone to address their
 fellow citizens. The congregations at
 the square also served to get and to
 disseminate information, to organize
 and orchestrate support efforts. They
 joined work teams, were updated
 on the latest news and looked for
 loved ones. The square was also the
 location where the city as a collective
 figured out how to resolve blood
 shortages and how to negotiate for
 prisoners' freedoms in exchange for
 handing weapons to the military. It
 was here, where citizens of Gwangju
 formulated goals of their movement:
 compensation for victims, an apology
 by the government and imprisonment
 of Chun Doo-hwan.



권승찬, <거기 2>, 2010, 라이트 박스 설치,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의 꽃»(2010) 설치 장면. 작가 제공.
 Seung-chan Gwon, *That Place 2* (2010) in *The Flower of May*,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2010). Courtesy of the artist.

거기 3, 2020
 라이트 박스에 디지털 프린트, 두 점
 100 × 160cm
 작가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재제작

That Place 3, 2020
 2 digital prints on light boxes,
 100 × 160cm
 Courtesy of the artist

Reproduced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거기>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2010)와 함께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 초점을 맞춘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전 «오월의 꽃»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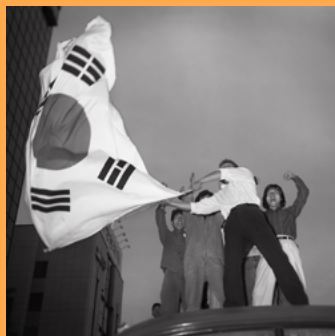
당시 설치 모습을 재현한 <거기 3>은 전시장을 가로질러 군인과 광주 시민이 서로 마주 보도록 설치됐다. 2010년 당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1980년 민간인 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이 배치됐던 광주의 군사기지를 찾아갔다. 작가는 그곳에서 사진을 촬영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빨간색 메모를 들고 있는 군인의 사진을 촬영했다. 반대편에 설치된 또 다른 사진은 그 사진의 촬영 일시가 적힌 빨간 카드를 든 민간인 여성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1980년 범시민 쉼기대회가 개최된 민주광장에서 촬영됐다. 비록 두 인물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긴 하지만,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그들은 관객에게 당시 군인과 시민 사이의 교착 상태를 상기시킨다.

That Place was first presented at *The Flower of May*, the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ing on artists who engaged with social practices.

Emulating its original presentation, *That Place 3* is installed to have a soldier and Gwangju citizen face one another. In developing this artwork in 2010, Gwon accessed a military base in Gwangju from which troops in 1980 were deployed to suppress the civilian uprising. Gwon made a portrait of a soldier stationed holding a red note indicating the date and time when the photograph was taken. The other portrait shows a civilian holding a similar red card noting its date and time of creation as well. The female citizen was photographed at Democracy Plaza, the square where the mass rallies of 1980 were held. Although both are not from the generation who directly experienced May 18, they face each other reminding the viewers of the stand-off between military and the citizens.



3-a



3-b



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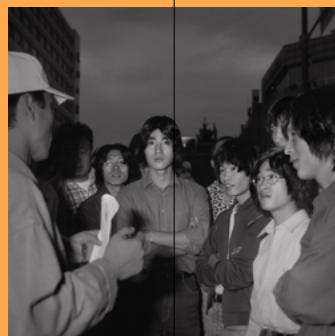
3-d



4-a



4-b



4-c



4-d



4-e

광주이야기, 1995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60 × 62cm
작가 제공

Gwangju Story, 1995
Archival pigment print
60 × 62cm
Courtesy of the artist

- 3-a.
도판 17. 비전향 장기수를 묘사한 포스터, 1995년 9월 28일
- 3-b.
도판 5. 태극기를 흔드는 4명의 배우들, 1995년 9월 28일
- 3-c.
도판 10. 가짜 탱크 위에 고등학생 자원 연기자, 1995년 9월 28일
- 3-d.
도판 13. 버스 안의 구경꾼들, 1995년 9월 28일
- 4-a.
도판 21. 고등학생 자원 연기자, 1995년 9월 28일
- 4-b.
도판 22. 태극기가 얹힌 수레, 1995년 9월 28일
- 4-c.
도판 20. 시위대의 주역을 연기할 고등학생 자원 연기자들, 1995년 9월 28일
- 4-d.
도판 16. 시위대의 주역을 맡은 배우, 1995년 9월 28일
- 4-e.
도판 14. 장교를 연기하며 총을 든 배우, 1995년 9월 27일
- 3-a.
Plate 17. A poster depicting unconverted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Sept. 28, 1995
- 3-b.
Plate 5. Four actors waving the Korean flag, Sept. 28, 1995
- 3-c.
Plate 10. A high school student on a fake tank, Sept. 28, 1995
- 3-d.
Plate 13. Spectators in a bus, Sept. 28, 1995
- 4-a.
Plate 21. A high school student, voluntary actor, Sept. 28, 1995
- 4-b.
Plate 22. A carriage covered with Korean national flag, Sept. 28, 1995
- 4-c.
Plate 20. Voluntary high school student actors in roles of leading demonstrators, Sept. 28, 1995
- 4-d.
Plate 16. An actor in the role of a leading protester, Sept. 28, 1995
- 4-e.
Plate 14. An actor pretending to be a military officer, Sept. 27, 1995

2006년 제6회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장선우 감독의 1996년 개봉작 <꽃잎>을 제작하던 중에 촬영된 시리즈이다. 영화 <꽃잎>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총격 속에 죽어가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친 15세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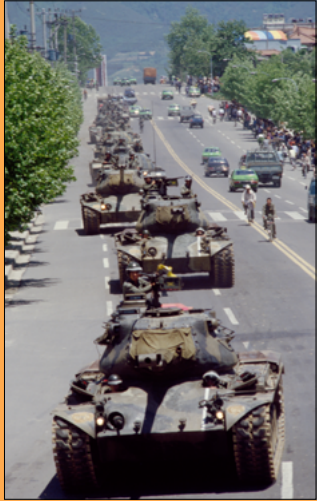
오형근 작가는 감독의 요청으로 영화의 공식 포스터 이미지를 촬영했는데, 본 작품을 구성하는 사진 대부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대 규모의 시위를 재현한 금남로 시위 장면을 촬영할 당시의 사진들이다. 시위 장면을 재현하는 데 3천 명 이상의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작가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촬영을 위해 모인 이 인파가 실제 시위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촬영장에 경찰이 배치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 전문 배우, 실제 경찰관과 군인들이 사진에 모두 담겨있다.

3층에 전시된 작품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원형으로 삼은 영화적 순간들을 보여주며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한 기자들의 보도사진과 공명하고, 전시장 2층에 전시된 인물사진들은 영화 세트장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보여준다.

Originally presented in 2006 at *Fever Variations*, the 6th Gwangju Biennale, this series of photographs documents the making of the film *A Petal* by Sun-woo Jang, released in 1996. The film follows the story of a 15-year old girl, Petal, who deserts her dying mother in the midst of gunfire during the uprising of May 18.

Heinkuhn Oh had been invited by the film director to create an image for the movie's official poster. Most of the photographs that eventually became a series were taken when Jang was filming the scenes of the protests at Geumnam street, re-enacting one of the largest protes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More than 3000 Gwangju citizens volunteered to restage these protests. Ironically, according to Oh, police were dispatched to the film location in case the staged gathering would inspire another uprising. Hence, the photographs portray Gwangju citizens, professional actors, real policemen and military soldiers.

The selection of the series presented on the third floor represents cinematic moments that are modelled on the historic events. They resonate with images of the protest made by journalists who documented the uprising at the time. The portraits on the second floor feature ‘onlookers’ on the film set.



a



b



c



d



e



f



g

1980년 5·18민주화운동 보도사진

가변 크기

사진 5·18기념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아크릴 위에 UV 인쇄

Press photographs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Various Dimensions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UV printed photograph on acrylic
panel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나경택

a.
사진 074_800527, 슬라이드 4-2

b.
사진 02-05

c.
사진 34-24

이창성

d.
사진-043_800520 20일 오후 color-02

e.
049_26일, 02-10

f.
사진-020_800522 무장한 데모대들,
거리 모습-15

g.
078_800522 무장한 광주 학생

Kyung-taek Na

a.
Photo 074_800527, slide 4-2

b.
Photo 02-05

c.
Photo 34-24

Chang-seong Lee

d.
Photo-043_800520 20th afternoon
color-02

e.
049_26th, 02-10

f.
Photo-020_800522 Armed
demonstrators, street view-15

g.
078_800522 An armed Gwangju
student

5·18민주화운동 현장에 있던 소수의 사진작가와 기자들은 1980년 5월, 그 10일 간의 기록을 남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계엄군이 자행한 잔학상과 광주 시민들의 놀라운 연대를 알게 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에서 벌어진 경찰과 학생들 사이 대치에서부터 1980년 5월 20일 버스와 택시들의 금남로 차량 시위, 전날 밤 광주역에서 발견된 두 학생의 시신이 실려 오면서 확대된 1980년 5월 21일 시위에 이르기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보여준다.

The small number of photographers and journalists present at the uprising have played a key role in documenting the 10 days of the May 1980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circulation of their photographs made the world aware of th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military as well as of the inspiring solidarity between the citizens of Gwangju.

The selection of photographs shows key moments of the uprising from the confrontation of the police and student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May 18, 1980, to the military sending more troops to Gwangju on May 20, 1980 to a procession of buses and taxis on Geumnam street on May 20, 1980 to protests on May 21, 1980, when citizens draped the South Korean flag over the bodies of two students killed at Gwangju Station the night before.



박태규, <광주탈출>, 2002, 제4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집행유예»(2002) 전시 장면.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Tae-kyu Park, *Escaping Gwangju* (2002), 4th Gwangju Biennale in the section
Stay of Execution (2002).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광주탈출, 2002
합판에 페인트
각 73 × 103cm; 182 × 182cm
작가 제공

광주탈출, 2002
포스터 출력; 합판 입면 간판에 페인트
각 51.5 × 75.5cm; 70 × 170cm
작가 제공

Escaping Gwangju, 2002
Paint on plywood
73 × 103cm each; 182 × 182cm
Courtesy of the artist

Escaping Gwangju, 2002
Printed poster and a standee made
with paint on plywood
51.5 × 75.5cm each; 70 × 170cm
Courtesy of the artist

<광주탈출> 시리즈는 본래 성완경이 예술총감독을 맡은 제4회 광주비엔날레 «집행유예» 전시 출품작으로 구(舊) 헌병대 막사에서 전시된 작품이다. 당시 헌병대 식당 입구와 식당 내에 설치됐던 이 작품은 가상의 영화 <광주탈출>의 배너와 포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포스터를 비롯한 회화 작품들은 헌병대 식당에서 일어났던 고문과 잔혹한 신문의 기억에서 도망친 하급 사병에 관한, 실제로 제작된 적이 없는 영화를 홍보한다. 작가는 가상의 영화에 대한 포스터뿐 아니라 입간판도 제작하고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의 사본을 광주시 전역에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민주주의의 봄»에서는 작가의 2002년 포스터와 입간판, 새롭게 제작된 배포용 포스터가 2층과 3층 곳곳에 등장한다.

Escaping Gwangju was originally presented in a former military police barracks in *Stay of Execution* that was curated by Wan-Kyung Sung. Originally installed in the dining quarters of the military police, *Escaping Gwangju* was a project that included banners and posters of the fictional movie 'Gwangju Exodus'. The movie poster paintings advertise a movie that had never been made about a low ranking soldier who escaped the memories of torture and brutal interrogations that were once conducted in the dining quarters where the works of art were placed in 2002. In addition to painted movie posters, Park created standees from the fictive movie and printed paper copies of his painted movie posters that were displayed throughout the city and also given away to the public.

In *Spring of Democracy*, Park's posters, his standees and new reprints recur on both floor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5월 판화 연작, 1980년대
목판화
5·18기념재단 제공

May Print Series, 1980s
Woodcut prints on paper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 a. 무기분배, 1988, 52 × 64cm
- b. 도청결기대회, 1984, 79 × 64cm
- c. 헌혈구호, 1984, 79 × 64cm
- d. 황금동 전투, 1983, 64 × 52cm
- e. 깃발, 1988, 52 × 64cm
- f. 새벽전투, 1989, 64 × 52cm
- g. 구경꾼들, 1981, 64 × 52cm
- h. 햇불 행진, 1983, 64 × 52cm
- i. 나의 이름은, 1981, 52 × 64cm
- j. 갇아야 할 원수, 1985, 52 × 64cm
- k. 무기회수거부, 1985, 64 × 52cm
- l. 암매장, 1989, 52 × 64cm
- m. 대동세상 2, 1984, 79 × 64cm
- n. 대동세상 1, 1984, 79 × 64cm
- o. 투사회보 2, 1988, 79 × 64cm
- p. 투사회보 1, 1987, 52 × 64cm
- q. 오월-불, 1988, 52 × 64 cm

- a. *Distribution of Weapons*, 1988, 52 × 64cm
- b. *Indignation Rally at the Provincial Office*, 1984, 79 × 64cm
- c. *Crying for Blood Donation*, 1984, 79 × 64cm
- d. *The Battle at Hwanggeum-dong*, 1983, 64 × 52cm
- e. *Flags*, 1988, 52 × 64cm
- f. *The Battle at Dawn*, 1989, 64 × 52cm
- g. *On-lookers*, 1981, 64 × 52cm
- h. *Torchlight Parade*, 1983, 64 × 52cm
- i. *My Name Is*, 1981, 52 × 64cm
- j. *Revenge to be Taken*, 1985, 52 × 64cm
- k. *Refusal to return the Weapons*, 1985, 64 × 52cm
- l. *Secret burial*, 1989, 52 × 64cm
- m. *The Union World 2*, 1984, 79 × 64cm
- n. *The Union World 1*, 1984, 79 × 64cm
- o. *Leaflets of Fighters for Freedom 2*, 1988, 79 × 64cm
- p. *Leaflets of Fighters for Freedom 1*, 1987, 52 × 64cm
- q. *May-Fire*, 1988, 52 × 64cm

홍성담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민중 화가로, 1995년 제1회,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봄»에서는 작가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에 제작된 목판화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 연작은 일본과 유럽, 미국 전역에서 전시된 바 있다. 또한 몇몇 작품들은 책 표지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되기도 했다. 특히 <햇불 행진>(1983)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수많은 학술 서적과 일반 서적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홍성담은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사무 책상용 고무패드로 첫 판화를 만드는 등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과 거리 예술에 주력했던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황금동 전투>(1983)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을 그려낸다. 이렇듯 작가는 순간의 생생한 현실을 포착한다.

Hong Sung-dam is a noted *minjung* artist who participated in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His works of art have been presented at the 1st and 3rd Gwangju Biennale in 1995 and 2000. *Spring of Democracy* presents perhaps his most notable body of work - the woodcut prints he produced during and after the uprising. This body of work was widely presented from Japan to Europe and across the United States. His prints were used on book covers and a variety of project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particular, *Torchlight Parade* (1983) has graced many academic and popular book covers on the uprising and has become a symbol for the democracy process in South Korea.

Hong was among the artists who focused their energy on producing posters and street art to support civilian efforts during the uprising. Hong's prints attempted to capture the lived reality of the moment. *The Battle at Hwanggeum-dong* (1983) portrays women actively taking part in the fighting.



미르세아 수치우, <먼지에서 먼지로>, 2010, 제6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2014)
전시 장면.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Mircea Suciú, *Dust to Dust* (2010). *Burning Down the House*, 10th Gwangju
Biennale (2014).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먼지에서 먼지로, 2010
모노프린트
69 × 46cm, 141 × 67cm
작가 제공

Dust to Dust, 2010
Monoprints on paper
69 × 46cm, 141 × 67cm
Courtesy of the artist

미르세아 수치우의 설치 작품 <먼지에서 먼지로>는 전 세계 주요 정치 사건과 민중 시위를 담은 사진에 토대한 50점의 회화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지에서 먼지로>를 구성하는 각 작품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사진을 원형으로 삼아 보다 넓은 맥락에서 근래 시위의 역사를 다룬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두 작품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나경택 사진기자의 보도사진에서 출발했다. 한 작품은 1980년 5월 20일 금남로에서의 공수부대와 민간인 간의 대치를 묘사하며, 또 다른 작품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결정적 순간인 1980년 5월 15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의 학생들과 전투경찰 간의 대치에 기반을 둔다. 작가는 모노프린트를 통해 시위에 참여한 민간인 개개인의 얼굴의 특징과 같은 디테일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거나 폭력을 가하는 주체들을 군중으로 흐릿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

The installation, *Dust to Dust* encompassed 50 drawings of photographs depicting political events and popular uprisings from around the world. Each drawing of *Dust to Dust* was based on a photograph sourced from a newspaper or magazin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to a broader and more recent history of protest.

The two drawings presented in *Spring of Democracy* are based on details from photographs taken by the photojournalist Kyung-taek Na. One depicts a confrontation between paratroopers and civilians at Geumnam street on May 20, 1980. The other drawing is based on a photograph of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confronting riot police at the university's main gate taken on May 15, 1980, a pivotal moment that bega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uciú's process of recuperating images draws to the fore details like the individual facial features of civilian protestors or blurs perpetrators into a mass mob through his monoprints.



a



b



c



d



e



f



g



h



i



j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기자들을
담은 보도사진
가변 크기
5·18기념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아크릴 위에 UV 인쇄

Press photographs featuring
journalists who documented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Various Dimensions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UV printed photograph on acrylic
panel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이창성

- a. 사진-027_800525 송정리 앞 노상 바리케이트-24
- b. 사진-029_800527 검색, 소탕 작업하는 군-10
- c. 사진-026_800522 무장한 광주 학생들의 거리 모습(아침) 02-30
- d. 048_26_021
- e. 031_800527 계엄군 광주 시내 돌입 (검문검색)-27
- f. 사진-001_검거되는 데모대들-22
- g. 072_800521 광주 사진 복사-5
- h. 사진-027_800525 송정리 앞 노상 바리케이트-21
- i. 사진-022_(800527 슬라이드 6)_2555-4
- j. 사진-022_(800527 슬라이드 6)_2555-1

Chang-seong Lee

- a. Photo-027_800525 barricade in front of Sonjeong-ri road-24
- b. Photo-029_800527 military search, crackdown-10
- c. Photo-026_800522 armed Gwangju students street view (morning) 02-30
- d. 048_26_021
- e. 031_800527 martial law forces enter Gwangju city (search)-27
- f. Photo-001_demonstrators under arrest-22
- g. 072_800521 Gwangju Photograph reproduction-5
- h. Photo-027_800525 Barricade in front of Sonjeong-ri road-21
- i. Photo-022_(800527 slide 6)_2555-4
- j. Photo-022_(800527 slide 6)_2555-1

3층에 전시된 기자들의 이미지는 나경택과 이창성이 촬영한 보도사진들로, 당시 언론인들이 처했던 긴장된 상황을 투영한다. <검색, 소탕 작업하는 군>에서는 공공장소를 은밀히 감시하는 옥상 위 군인들을 볼 수 있다. <송정리 앞 노상 바리케이트>는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하면서 기자들의 광주 진입이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창성과 나경택 외에도 『동아일보』의 김정근, 미국연합통신(AP)의 테리 앤더슨, 『주드 도이치 차이퉁』의 게브하르트 힐셔, 독일 ARD-NDR TV의 위르겐 힌츠페터, 『LA 타임즈』의 샘 제이미슨, 『발티모어 선』의 브래들리 마틴, 『뉴욕타임스』의 심재훈, 『르몽드』의 필리프 풍스,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의 노만 토프, 『조선일보』의 김대중과 소정원, 『한국일보』의 조성호, 『중앙일보』의 장재유, MBC의 오협진, 『국제신문』의 김양우 등의 언론인들이 민주화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광주로 갔다.

The journalists' images on the third floor, taken by the photographers Kyung-taek Na and Chang-seong Lee, reflect the tense situations that the journalists found themselves in. One photograph, for example, shows soldiers on rooftops covertly surveilling public space. Other photographs allude to the difficulties journalists encountered in entering Gwangju as the military began to close off the city.

Beyond Chang-seong Lee and Kyung-taek Na, Chung-geun Kim of *Dong-A Ilbo*, Terry Anderson of the Associated Press, Ghebbard Hielscher of *Suddeutsche Zeitung*, Jürgen Hinzpeter of ARD-NDR German TV, Sam Jameson of the Los Angeles Times, Bradley Martin of the *Baltimore Sun*, Shim Jae Hoon of the *New York Times*, Philippe Pons of *Le Monde*, Norman Thorpe of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Dae-jung Kim and Chung-won Soh of *Chosun Ilbo*, Sung-ho Cho of *Hankook Ilbo*, Jae-yoo Chang of *Joongang Ilbo*, Hyop-jin Oh of *MBC* and Yang-woo Kim of *Kukje Shinmun* were amongst the journalists who were in Gwangju covering the uprising.



임민욱, <네비게이션 아이디—X가 A에게>, 2014, 2채널 영상 설치,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2014) 출품작. 작가 제공.
 Minouk Lim, *Navigation ID* (2014),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in *Burning Down the House*, 10th Gwangju Biennale (2014). Courtesy of the artist.

네비게이션 아이디, 2014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26분 40초
 작가 제공

X가 A에게, 2014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26분 27초
 작가 제공

Navigation ID, 2014
 Single-channel video, color, stereo
 sound, 26min 40sec
 Courtesy of the artist

From X to A, 2014
 Single-channel video, color, stereo
 sound, 26min 27sec
 Courtesy of the artist

임민욱의 <네비게이션 아이디>는 2014 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비엔날레 홀 앞 광장으로 두 개의 선적 컨테이너를 가져오면서 선보였다. 이 컨테이너들에는 친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발굴과 진상 규명, 이에 따른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봄» 전시에서 발표된 두 개의 영상은 이 프로젝트의 기록이다. <X가 A에게> 영상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실종’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후손과, 광주 민주화운동 중에 ‘사망’으로 인정받은 이들의 어머니들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한, 작가와 공동체들의 협력과 대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네비게이션 아이디> 영상은 그 과정에서, 어느 곳도 아니면서 어디서나 보이는, 두 개의 컨테이너를 비엔날레로 소환하고 생중계 형식으로 담았던 개막식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다. 임민욱의 작품은 ‘국가폭력’이라는 말이나 숫자로만 파악하는 역사의 추상성 대신 현실에서 부재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추상성을 현전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인간다움에는 규정된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의 자리를 떠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음을 가리키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평등 개념을 되돌아본다.

Presented at the opening of the 10th Gwangju Biennale in 2014, Minouk Lim's *Navigation ID* brought two shipping containers to the public square in front of the Biennale Halls. The containers held the remains of the victims killed in civilian massacres during the Korean War. The containers held the remains of the victims killed in civilian massacres during the Korean War. The victims' families hoped to restore honor to the deceased, by demanding a proper excavation and burial with a national investigation for truth.

The videos presented in *Spring of Democracy* are the documentation of this project. *From X to A* elaborates on Lim's collaborative work with community groups to bring the descendants of victims who were killed but recorded as "missing" by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together with the mothers of those killed in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Navigation ID* records Lim's performance at the opening of Gwangju Biennale, where two shipping containers holding the remains were transported to the exhibition venue and broadcasted live throughout the process. Lim questions how her work can embody the abstraction of history by resisting occlusions which reduce the victims to mere statistics through euphemisms such as 'state violence'. Furthermore, her work foregrounds the spirit of the Gwangju Democratic Movement and the democratic spirit of equality by examining the humanity within us and the ability to go beyond our given social boundaries to empathize with the pain of others.

<네비게이션 아이디>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이며, 한국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일했던 한성훈 박사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임민욱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함평, 진주, 경산의 피학살자 유족단체, 5월 어머니 집, 광주 트라우마 센터와 협력했다.

Navigation ID was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Dr. Sung Hoon Han,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who previously worked on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Minouk Lim also worked together with a number of victims' family groups in Hampyeong, Jinju and Gyeongsan, as well as the Mothers' House of the May, and the Gwangju Trauma Center for this project.



쿠어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 <퍼머넌트 홀리데이, 왜 어떤 이는 떠나고 어떤 이는 남는가?>, 2016; <얼굴 없는 역사의 풀 바디 마스크>, 2016,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2016) 전시 장면. 작가 제공.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Permanent Holydays, how come some leave and others stay behind?* (2016) in *The Eighth Climate (What does art do?)*, 11th Gwangju Biennale (2016). Courtesy of the artists.

퍼머넌트 홀리데이, 왜 어떤 이는 떠나고 어떤 이는 남는가?, 2016
싱글채널 HD 영상, 32분

퍼머넌트 홀리데이 영화 포스터, 2016
오프셋 프린트 50 × 70.7cm

얼굴 없는 역사의 풀 바디 마스크, 2016
(블라드미어 마이즐린, 디에고 카텔란 협업)
폼과 직물, 70 × 160cm

광주 시민위원회의 (미발간) 시민회보, 2016
리조 프린트, 21 × 27cm, 1000부

작가 제공

Permanent Holyday, how come some leave and others stay behind?, 2016
Single channel, Video HD, 32 min

Permanent Holydays Film Poster, 2016
Offset print, 50 × 70.7cm

Full body mask of the faceless of history, 2016
(in collaboration with Vladimir Maislin, Diego Catelan)
Foamie and clothes, 70 × 160cm

Pamphlet of the last communique by the Gwangju People's Movement (unpublished), 2016
Riso print, 21 × 27cm, 1000 copies

Courtesy of the artists

쿠어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는 제 11회 광주비엔날레 (2016)에서 가면무도회와 리애니메이션, 거리 행사 등 일련의 작품과 행사뿐 아니라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투쟁 간의 공명과 내재적 연대를 고찰하는 아카이브를 선보였다.

<퍼머넌트 홀리데이, 왜 어떤 이는 떠나고 어떤 이는 남는가?>(2016)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주화운동에 감동을 받은 6명의 유령이 (플라스틱 동굴, 라바 스톤, 얼굴 없는, 조니 마카니토, 코, 유령 배너) 떠나는 여정을 시작으로 고찰하는 영화다. 유령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한다. 크라터 인버티도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오후 5시 18분부터 오전 5시 18분 사이에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유령과도 같고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체를 가진 광주 정신을 현현하게 한다.

영상에도 소개되며 관객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전시장에 비치된 미발간 『시민회보』는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시민회보는 제작 후 36년이 지난 후 광주비엔날을 통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배포됐다.

For the 11th Gwangju Biennale (2016),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developed a series of work of art and events, including masquerades, re-animations, street events but also archives, that investigated the resonances and inherent solidarities between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struggles that connect Mexico and South Korea.

The presented film, *Permanent Holydays, how come some leave and others stay behind?* (2016) is a poetic extrapolation of a journey of six ghost characters, (Plastic Cave, Lava Stone, Face Less, Johnny Macannito, The Nose and Ghost Banner). These phantoms visit different historic sit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film was deliberately made between 5:18 pm and 5:18 am, providing a spectral but also corporeal manifestation of the Gwangju Spirit.

The *Pamphlet of the last communique* which is included alongside the film and which is available for the public to take copies of was originally designed in 1980 for the uprising. It was never published till finally it was distributed to the public with a 36-year delay during the 11th Gwangju Biennale.



013_800520 군과 대치된 데모대들
5·18기념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유리 위 비닐 스티커 제작

*013_800520 Stand-off between army
and demonstrators*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Vinyl sticker on glass created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1980년 5월 20일 어둠이 내리자 시민들뿐 아니라 택시 기사, 버스 기사, 트럭 기사들까지 차를 몰고 차량 시위 행렬에 참여했다. 도청 광장으로 향하는 행렬에 버스와 대형 트럭이 앞장서고 수백 대의 택시가 뒤를 이었다. 공수부대가 바리케이드에 다가가며 시민 차량을 향해 던진 최루탄에 밤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5월 20일, 그 밤 광주시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As night fell on May 20, 1980, citizens used their vehicles to form a parade as their way to demonstrate. With buses and large trucks leading the way, hundreds of taxis headed towards the Provincial Hall square. The smoke in the night sky in the photograph is from the tear gas canisters that paratroopers threw at the vehicles as they reached the military barricades, harming many citizens. May 20 was the same night that violent demonstrations broke out through the city.



강연균, <하늘과 땅 사이 I>, 1981. 작가 제공.
Yeon-gyun Kang, *Between Heaven and Earth I* (1981). Courtesy of artist.

하늘과 땅 사이 1, 1981
수채화
259.1 × 193.9cm
동강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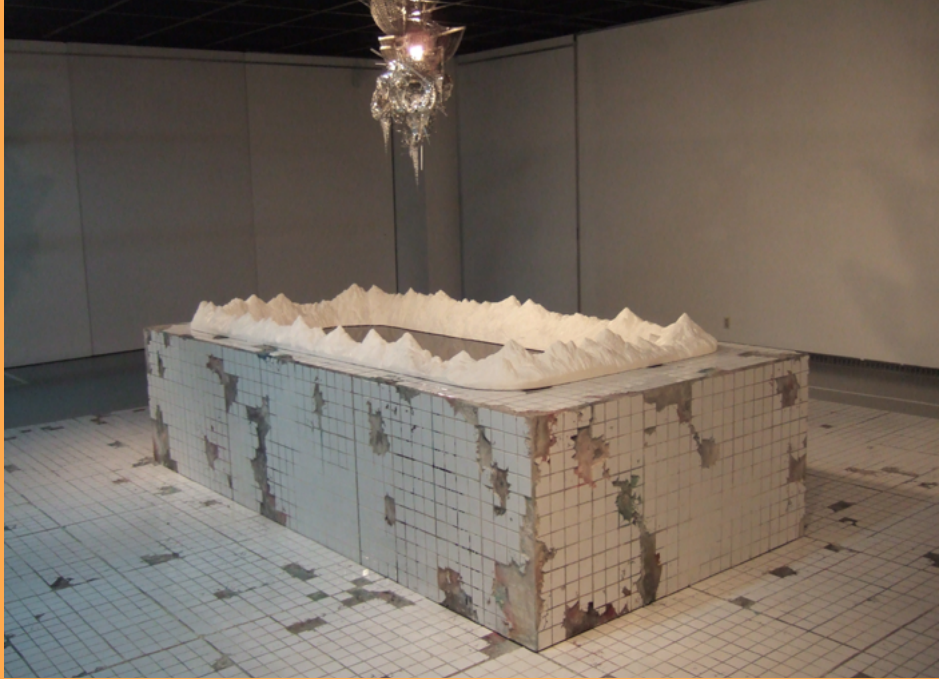
Between Heaven and Earth I, 1981
Guache on paper
259.1 × 193.9cm
Collection of Donggang University
Museum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당시 «광주통일미술제»라는 제목으로 안티비엔날레를 기획한 강연균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품을 제작해 왔다. 1980년 작품을 시작해 1981년도에 완성한 <하늘과 땅 사이1>(1981)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작가의 반응을 담은 연작 중 첫 작품이다. 해당 연작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달콤한 이슬 1980 그 후»(2014)에도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도드라진 특색 없이 비탄 속에 뒤틀린 시신과 육체를 통해 광주에서의 잔혹한 군사 압제로 인한 공포와 번민, 슬픔으로 고통받는 인간상을 보여준다.

<하늘과 땅 사이 1>는 1981년 서울 신세계 갤러리에 처음 전시될 당시 관람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후 1937년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그려낸 파블로 피카소의 명작에 빗대어 한국의 <게르니카>로 불리기도 했다.

Yeon-gyun Kang, who organized the Antiennale, known as Gwangju Unification Art Festival in 1995, in parallel to the 1st Gwangju Biennale, has been creating works that reveal the truth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 experienced in Gwangju. *Between Heaven and Earth I*, which he worked on between 1980 and 1981, is the first of his life-long *Between Heaven and Earth* series that represent his personal reaction to the event. The series was also featured in *Sweet Dew: After 1980* (2014), the 2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Gwangju Biennale. In this painting, corpses and bodies contoured in grief without individually distinguishable features allude to a humanity afflicted by the horror, anguish and sadness caused by the brutality of the military suppression in Gwangju. Kang began to work on the painting in June and July of 1980 as he wanted to create a painting that symbolize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death that from his perspective defined it.

When the painting was first shown in Seoul at the Shinsegye Gallery in 1981, it shocked audiences and was subsequently called Korea's *Guernica* - a reference to Pablo Picasso's famous anti-war painting on the Spanish Civil War in 1937.



이불, <천지>(2007),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의 꽃»(2010) 전시 장면.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Lee Bul, *Heaven and Earth* (2007), *The Flower of May*, 3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2010).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천지를 위한 습작, 2006
종이에 연필
36 × 50.9cm
작가 제공

천지를 위한 드로잉, 2006
종이에 인디아 잉크와 색연필
50.9 × 36cm
작가 제공

<천지>(2007), «오월의 꽃» 전시
설치전경(2010)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배너에 사진 인쇄

Study for Heaven and Earth, 2006
Pencil on paper
36 × 50.9cm
Courtesy of the artist

Drawing for Heaven and Earth, 2006
India ink and colored pencil on paper
50.9 × 36cm
Courtesy of the artist

Installation photograph of *Heaven and Earth* (2007) presented at *The Flower of May* (2010)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Photograph transferred on banner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이불의 <천지>(2007)는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의 고문치사를 야기한 물고문에 사용된 욕조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모더니즘 건축가 김수근이 고문 전용 건물로 설계한 서울 도심 주거지 소재의 대공 분실에는 고문실마다 욕조가 설치됐다.

욕조 가장자리는 백두산을 본뜬 형상이다. 정상을 기준으로 북한과 중국의 영토를 나누는 백두산은 기원전 946년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휴화산으로 분화구에는 화산 호수 천지가 자리 잡고 있다.

신군부는 자신들의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공산당이 사주한 내란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불의 <천지>는 민주화를 향한 한국의 열망을 대표하는 5·18민주화운동을 냉전으로 인한 남북 분단과 연결 짓는다. «민주주의의 봄»에서는 <천지>를 위한 드로잉과 습작이 전시된다.

Lee Bul's *Heaven and Earth* (2007) is a reconstruction that recalls the bathtub that was used in the water-torture that led to the death of the student Yong-chul Park in January 1987. Such bathtubs were part of the cells in a former torture center that was purpose-designed by modernist architect Swoo-geun Kim.

The edge of the tub is modelled after Mt Baekdu, whose peak marks the border between present-day North Korea and China. Mt Baekdu is a dormant volcano which last erupted in 946 CE and within its crater is Cheonji, Heaven Lake.

In order to justify their brutality, the military dictatorship framed the Gwangju civic uprising as North Korean communist supported insurgencies. Lee Bul's *Heaven and Earth* links the Cold War informed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o the civic uprisings that defined South Korea's drive to democratization. *Spring of Democracy* presents the preparatory drawings for Lee Bul's *Heaven and Earth* (2007).



a



b



c



d



e



f



g



h



i



j



k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일상과
동지애를 담은 보도사진

가변 크기

5·18기념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아크릴 위에 UV 인쇄

Press photographs featuring the
everyday lives of Gwangju citizens and
their camaraderie during the uprising

Various Dimensions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UV printed photograph on acrylic
panel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이창성

- a. 사진-043_800520 20일오후color-18
- b. 사진-026_800522 무장한 광주 학생들의 거리 모습(아침)
- c. 016_800521 금남로 상황(오전 11시)-07
- e. 081-800529 광주 시내 모습-17
- g. 사진-026_800522 무장한 광주 학생들의 거리 모습(아침) 02-07
- i. 083_800528 상무관 시체-9
- j. 041_800522 도청에 안치된 시체-15

나경택

- d. 61-10
- f. 33-02
- h. 52-26
- k. 71-21

Chang-seong Lee

- a. Photo-043_800520 20th afternoon color-18
- b. Photo-026_800522 Armed Gwangju students (morning)
- c. 016_800521 Geumnam street (11 am) -07
- e. 081-800529 A View of downtown Gwangju-17
- g. Photo-026_800522 Armed Gwangju students (morning) 02-07
- i. 083_800528 Sangmugwan corpses-9
- j. 041_800522 coffins placed inside the Provincial Hall-15

Kyung-taek Na

- d. 61-10
- f. 33-02
- h. 52-26
- k. 71-21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 21일부터 광주시를 재점거한 1980년 5월 27일까지 광주시에서는 시민 자치가 실현됐다. 무장한 광주 학생들의 거리 모습(아침)은 의료진과 시민군의 협력을 기록하고 <광주 시내 모습>에서는 계엄군 철수 이후 다시 문을 연 가게들을 볼 수 있다. <상무관 시체>는 시민들이 사망자들을 위한 장례 절차를 직접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논할 때 종종 간과되는 여성의 역할도 이 사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민주화운동 이후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간 어머니들과 식량 배급을 주도한 노점상들, 금남로 시위자들을 먹인 수백 명의 주부들이 바로 그들이다. YWCA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사진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여성 활동가 단체인 송백회는 수감된 활동가 가족들을 도왔다.

«민주주의의 봄»은 광주 시민들을 한데 묶은 연대와 자발성, 광주 정신에 주목한다. 계엄군이 촬영한 사진은 주로 시신 부검을 기록한 사진들인 관계로 제외되었다. 『중앙일보』 이창성, 연합뉴스 나경택 등 한국의 일간지에서도 사진기자를 광주로 파견했지만, 미국 기자 팀 서류에 따르면,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언론의 탄압으로 보도되지 못했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일반인에 공개되었다.

After the military was forced out of the city on May 21, 1980 and till the city was retaken on May 27, 1980, Gwangju citizens governed themselves. Photographs taken by journalists show how doctors worked with the civilian army and how citizens organized their own funerary arrangements for the fallen.

An often overlooked aspect of historie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but one that can be seen in some of these photographs is the important role that women played in the uprising. These included the mothers who grieved for their fallen loved ones and who continued to fight for justice after the civic uprising, the street vendors who organised food distribution and the hundreds of housewives who also fed demonstrators on *Geumnam* street. Working out of the YWCA,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worked together to support the uprising. One group, though not documented in these photographs, was the all-female Pure Pine Tree Society or *Song Baey Hoe*, an organization of female activists who worked together to help families of imprisoned activists.

Spring of Democracy focuses on the solidarity and spontaneity that brought the citizens of Gwangju together in what is remembered today as the Gwangju spirit. While the photojournalists, Lee Chang Seong of JoongAng Ilbo and Na Kyung-Taeok of Yonhap News Agency, were sent by South Korea's daily newspapers to document the uprising, according to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most of the images by South Korean photojournalists on the scene were not made widely and publicly accessible until a decade later.



배영환, <유행가: 입을 위한 행진곡>(1997-1999), 제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상처>>(2000) 전시 장면. 작가 제공.
Bae Young-hwan, *Pop Song: March for the Beloved* (1997-1999) presented in the exhibition *Scar*, a satellite exhibition of the 3rd Gwangju Biennale (2000). Courtesy of the artist.

유행가: 입을 위한 행진곡 ver. 2, 1997-1999
복합매체 설치
싱글채널 컬러 영상, 1분 28초; 44개 시멘트
블록
가변크기
작가 제공

Pop Song: March for the Beloved,
ver. 2, 1997-1999
Mixed media installation
Single channel colour video,
1min 28sec; 44 cement block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유행가: 입을 위한 행진곡 ver. 2>는 5·18민주화운동 중에 사망한 활동가 윤상원과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한다. 작품은 전시에 따라 변주되며,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대에 완공되었던 광주 시내의 도로를 교체하며 광주시로부터 제공받은 보도블록과 영상의 조합을 통해 등장한다. 작가는 각각의 보도블록마다 「입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글자를 하나씩 새기고 광주 시민들의 머리카락으로 틈새를 메꿨다. 제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상처>>(2000)에 출품된 버전에서는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했던 영상을, 또 다른 버전에서는 쌓아 올린 TV 화면으로 마치 군중을 떠올리는 듯한 들쭉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봄>>에서 전시되는 버전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쭉과 창가 옆 화분이 교차되며,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 인내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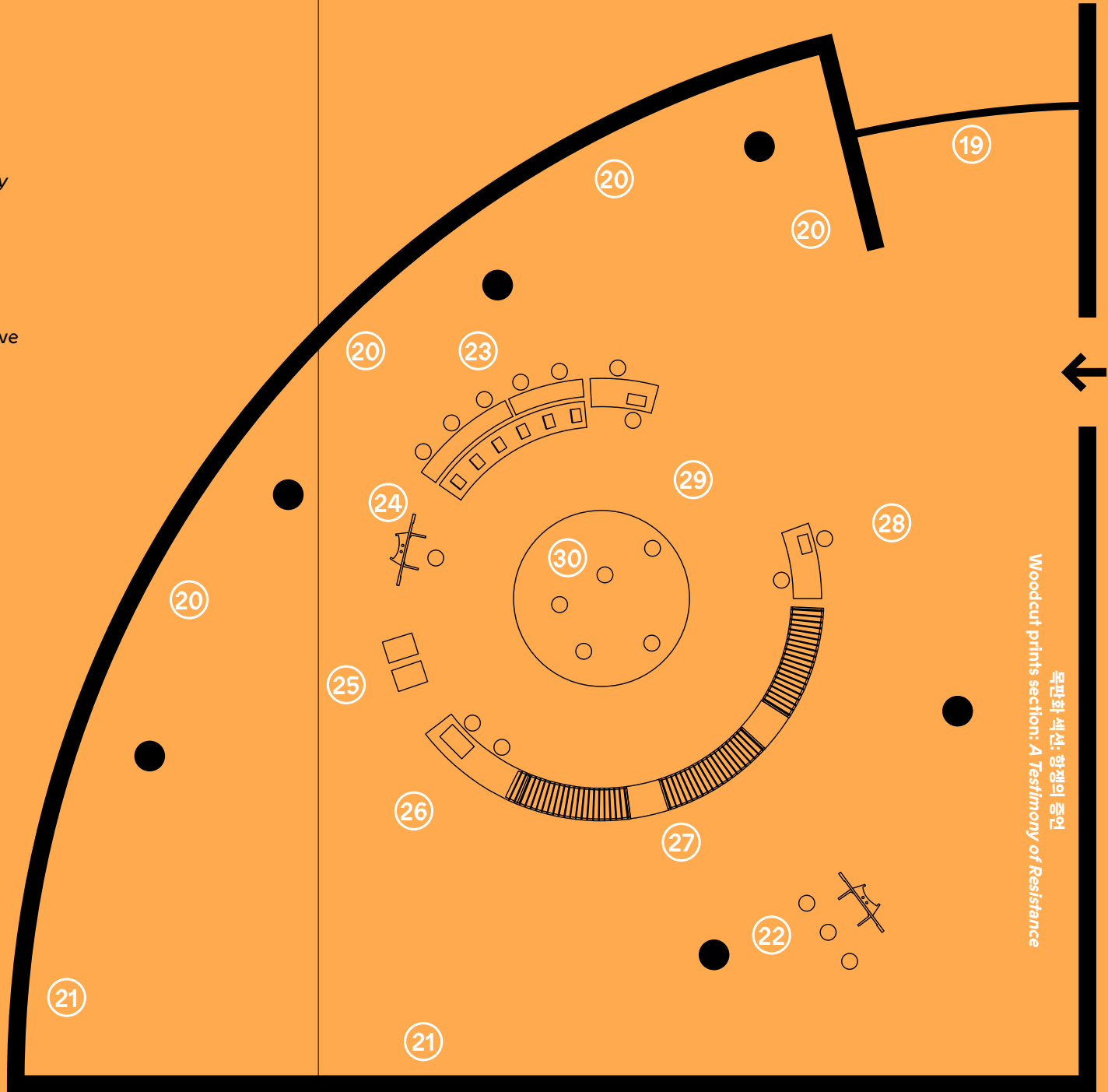
최근에는 대중에게 「입을 위한 행진곡」을 상기시키는 일련의 상황들이 발생했다. 2017년 서울 민주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보다 최근에는 2019년 홍콩 시위대가 이 가사를 번안해 불렀다.

Pop Song: March for the Beloved ver. 2 quotes a song written in 1981 for a spirit wedding of activist Yoon Sang-won, who died as part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ark Gi-soon, a labor rights activist who passed away years before him. *Pop Song: March for the Beloved* exists in at least three variations. The song is featured in each variation, which includes a video and pavements blocks. Bae received them from the Gwangju Municipality when one street completed in the early 1980s was undergoing reconstruction. Bae carved into each block a letter from the lyrics of the popular Gwangju protest song *March for the Beloved*. In each carving, Bae embedded hair from Gwangju citizens. One version which was presented in *Scar*, a satellite exhibition of the 3rd Gwangju Biennale (2000), includes footage of the uprising. Another version includes stacked televisions showing grass growing, which for the artist symbolizes grass roots movements. The version presented in *Spring of Democracy* also includes footage of grass growing to allude to the collective care, effort, attention and patience that the continual process of making democracy requires.

The song *March for the Beloved* has returned to public consciousness. It was sung by protesters gathered in 2017 at the Seoul Democracy Plaza to demand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More recently, it was adapted and sung in the 2019 Hong Kong protests.

2F

- 이창성 ①⑨ Chang-seong Lee
- 오형근 ②⑩ Heinkuhn Oh
- 노순택 ②① Suntag Noh
- 위르겐 힌츠페터 ②② ②④ Jürgen Hinzpeter
-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②③ *Spring of Democracy*
- 데스크 Resource Library
- 박태규 ②⑤ Tae-kyu Park
- 위르겐 힌츠페터 ②⑥ Jürgen Hinzpeter
- 백승우 ②⑦ Seung Woo Back
- 팀 셔록의 아카이브 문서 ②⑧ Documents from Tim Shorrock's archive
- 아카이브 스테이션 ②⑨ Archival workstation
- 만남의 공간 ③⑩ Gathering Place





800522 무장한 데모대들 거리모습-14
사진, 1980
5·18기념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불»(2020) 전시의 일환으로
유리 위 비닐 스티커 제작

*800522 Armed demonstrators, street
view-14*
Photograph, 1980
Courtesy of May 18 Memorial
Foundation

Vinyl sticker on glass created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사진 속의 시민군은 사진을 찍는 기자를 향해 손을 흔든다. 이 사진은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2019)의 포스터에도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 강상우 감독은 트럭에 오른 채 사진에 찍힌 남성의 신원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친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이 사주한 내란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수년 간 그가 반정부 폭력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 비밀 요원 ‘광수’라고 주장해왔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광주천 다리 밑에서 살던 농마주이 ‘김군’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This photograph shows members of the Citizens' Army waving at the photographer. This image has been also used on the poster of Sang-woo Kang's documentary film *Kim Gun* (2019) that unpacks the ongo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dentity of the man pictured on a pepper-spray cannon on that truck.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laims by some politicians and historians who argue tha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a North Korean supported insurgency that he is 'Gwang-su', a North Korean secret agent sent to instigate anti-government violence. Others remember him as 'Kim-gun', a ragpicker who lived under a bridge over the Gwangjucheon Stream.



a



b



c



d



e



f



g



h



i

광주이야기, 1996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62 × 60cm
작가 제공

Gwangju Story, 1996
Archival pigment print
62 × 60cm
Courtesy of the artist

- a. 도판 1. 두 명의 경찰관, 1995년 9월 30일
- b. 도판 3. 시위 장면을 구경하는 네 명의 광주 시민, 1995년 9월 29일
- c. 도판 2.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딸, 1995년 9월 28일
- d. 도판 6. 유리창이 깨진 버스 안의 한 시민, 1995년 9월 28일
- e. 도판 4. 시위 장면을 구경하는 두 농부, 1995년 9월 28일
- f. 도판 9. 광주 대학살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 사람, 1995년 9월30일
- g. 도판 7. 소풍 나온 가족, 1995년 9월 28일
- h. 도판 18. 두 구경꾼, 1995년 9월 28일
- i. 도판 15. 야구 모자를 쓴 노인, 1995년 9월 28일
- a. Plate 1. Two policemen, Sept. 30, 1995
- b. Plate 3. Four Gwangju citizens watching a demonstration scene, Sept. 29, 1995
- c. Plate 2. A Father, son, and daughter, Sept. 28, 1995
- d. Plate 6. A citizen in a bus with a broken window, Sept. 28, 1995
- e. Plate 4. Two farmers watching demonstration scene, Sept. 28, 1995
- f. Plate 9. Three citizens gathering signatures to denounce the cruelty of Gwangju massacre, Sept. 30, 1995
- g. Plate 7. A family on a picnic, Sept. 28, 1995
- h. Plate 18. Two spectators, Sept. 28 1995
- i. Plate 15. An old man wearing a baseball cap, Sept. 28, 1995

2층에서는 영화 세트장 주변 구경꾼들을 중심으로 한 오형근 작가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2006년 제6회 광주비엔날레 «열풍변주곡»에서 첫 선을 보인 본 작품은 1996년 장선우 감독의 개봉작 <꽃잎>의 제작 과정을 기록한다. 영화 <꽃잎>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총격 속에 죽어가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친 15세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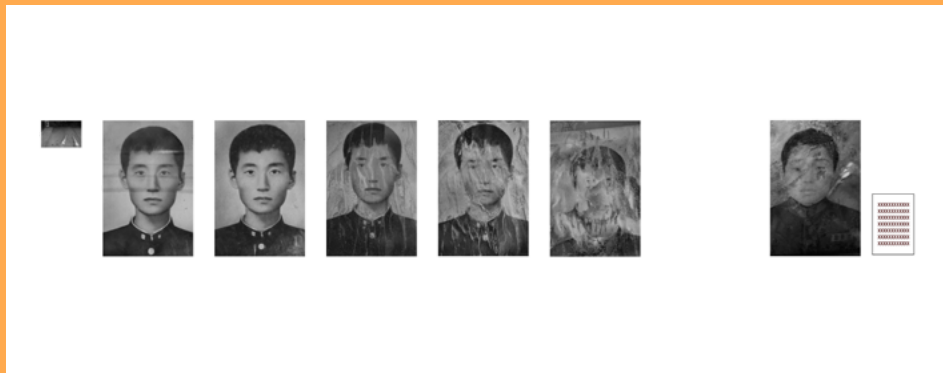
오형근 작가는 감독의 요청으로 영화의 공식 포스터 이미지를 촬영했는데, 본 작품을 구성하는 사진 대부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최대 시위인 금남로 시위 장면을 촬영할 때 찍은 사진들이다. 시위 장면을 재현하는데 3천 명 이상의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작가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촬영을 위해 모인 인파로 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이 현장에 경찰관들을 배치했다. 덕분에 광주 시민, 전문 배우, 실제 경찰관과 군인들이 사진에 담길 수 있었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가 5·18민주화운동을 묘사한 것도, 단순히 영화 제작 과정을 기록한 것도 아니라며 피사체의 절제된 표정을 담아냄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무언의 사회적 합의를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selection of the series presented on this floor focuses on Heinkuhn Oh's documentation of the onlookers around 'the film set'. Originally presented in 2006 at *Fever Variations*, the 6th Gwangju Biennale, this series of photographs documents the making of the film *A Petal* by Sun-woo Jang, released in 1996. The film follows the story of a 15-year old girl, Petal, who deserts her dying mother in the midst of gunfire during the May 18 uprising.

Oh was invited by the film director to create an image for the movie's official poster. Most of the photographs that eventually became a series were taken when Jang was filming the scenes of the protests at Geumnam street, re-enacting the largest protes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More than 3000 Gwangju citizens volunteered to restage these protests. Ironically, according to Oh, police were dispatched to the film location in case the staged gathering would inspire another uprising. Hence, the photographs portray Gwangju citizens, professional actors, real policemen, and military sold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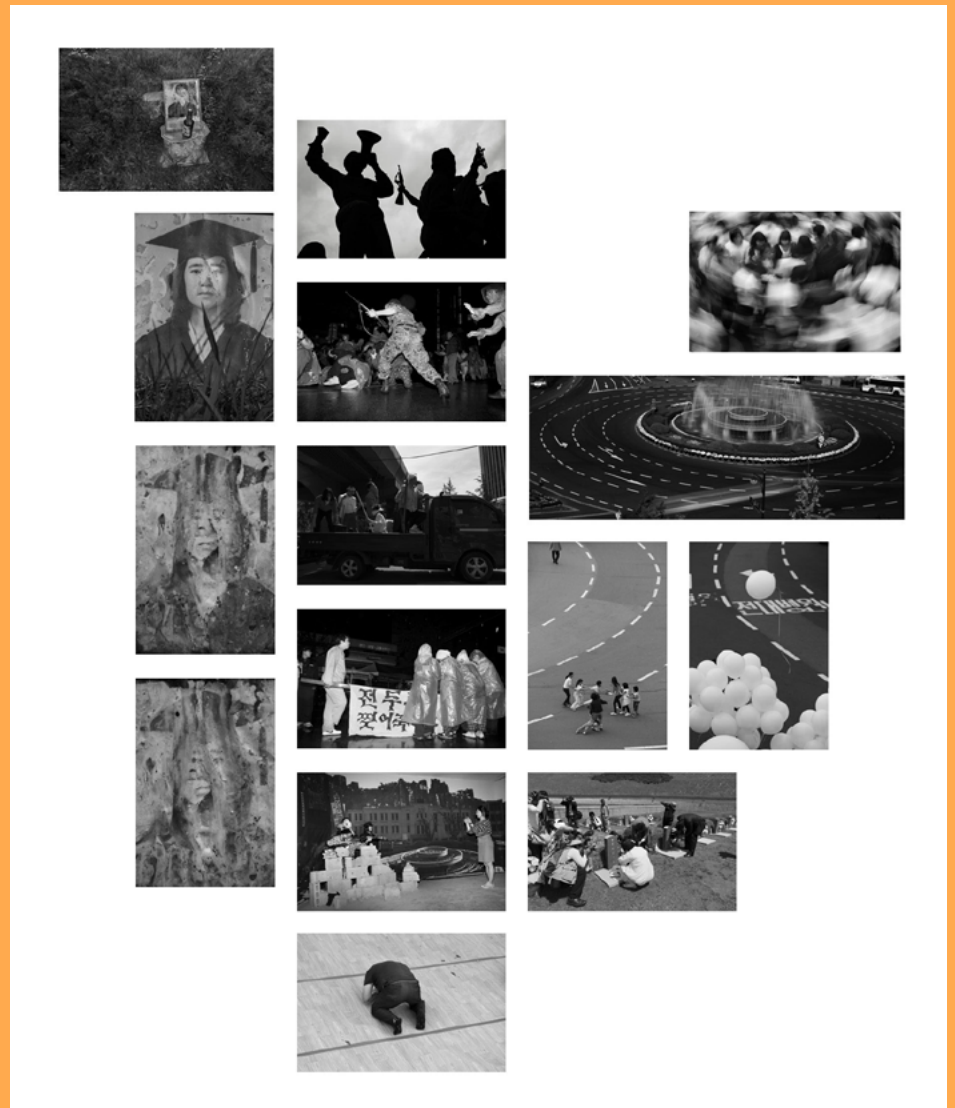
In describing this project, Oh has said that the series is neither a depic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nor a mere account of making a film, but rather the series in registering the stoic expressions of its subjects captures an unspoken social compact that comes out of the act of remembering and reacting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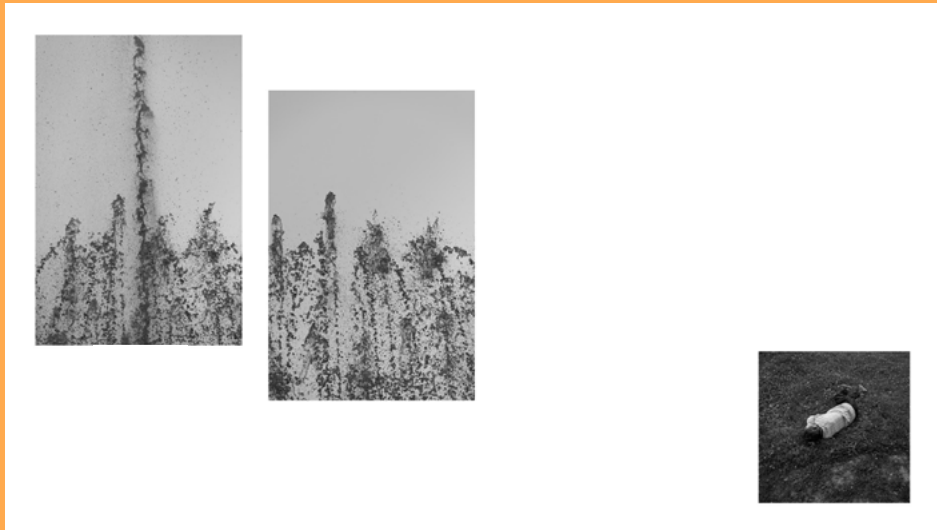


노순택, <망각기계>(2006-2020), 설치 구성도. 작가 제공.
 Suntag Noh, Installation schematic for *Forgetting Machines* (2006-2020).
 Courtesy of the artist.

망각기계, 2006-2020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가변크기
 작가 제공

Forgetting Machines, 2006-2020
 Archival pigment prints
 Various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제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2012)에서 소개된 바 있는 <망각기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이들이 묻힌 광주 옛 묘역에 놓인 영정사진을 작가가 다시 촬영한 이미지들이다. 영정사진은 대개 유리 액자에 넣어 야외에 두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훼손되기 쉽다. 이 묘역은 본래 5·18민주화운동 중에 계엄군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임시로 매장한 곳이었다. 1987년 군부독재가 끝나고 나서야 민간인 학살이 인정됐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야 5·18민주화운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1997년에 이르러서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들의 유해를 묻을 국립 5·18 민주묘지가 건설됐다. 하지만 몇몇 유가족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국립 묘지 이장을 거부했다.

본 전시에서 작가는 지난 15년간 눈에 띄게 색이 바랜 사진들을 선별해 기억에 대한 이미지들과 함께 배치했다. <망각기계>는 작가의 글과 함께 이미지의 조합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잊혀지고 무엇이 기억되는지 묻는다.

Originally presented at *Roundtable*, the 9th Gwangju Biennale (2012), *Forgetting Machines* presented images that Suntag Noh documented by re-photographing the funerary portraits on tombs from Gwangju's old cemetery of those who died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uch portraits are often housed outdoors in glass boxes and were thus over time damaged by the weather. The tombs were of victims killed by soldiers during the uprising and whose remains were temporarily buried as the uprising was still unfolding. It was not until the end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1987 that the massacre of civilians was recognized. It took another ten years for May 18 to become a national memorial day. In that year, 1997, a cemetery for the remains of those who died in the uprising was finally built. However, some families declined to move the remains to the new cemetery until an official apology for the massacre was issued.

For *Spring of Democracy*, Noh deliberately selected notable portraits that have faded over the past 15 years and contextualizes these with different images of remembrance. These images are narrated by a statement by the artist that is part of the installation. *Forgetting Machines* as an assemblage of images questions what is forgotten and remembered in the process of memorialization and commemoration.



<기로에 선 한국>(1980), 영상 스틸. © NDR 1980, 5·18기념재단 제공.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1980), video still. © NDR1980, Courtesy of May 18 Memorial Foundation.

기로에 선 한국, 1980
 영상, 5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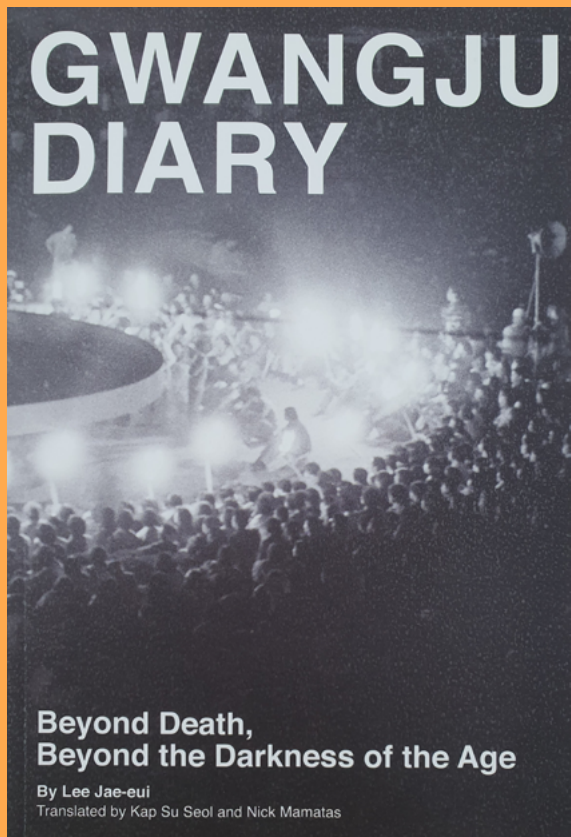
© NDR 1980, 5·18기념재단 제공

Südkorea am Scheideweg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1980
 Video, 54 min

© Nord Deutscher Rundfunk (NDR) 1980, Courtesy of May 18 Memorial Foundation

<기로에 선 한국>은 독일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도쿄 NDR 스튜디오로 은밀히 반입한 5·18민주화운동 영상을 토대로 독일 TV 방송용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이다.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당시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베트람 기자는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했다. 두 기자가 3일 만에 완성한 다큐멘터리는 김대중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1980년 9월 7일 에 방송됐다. 힌츠페터는 다큐멘터리 방영이 김대중의 사형 선고에 대한 “전 세계적 시위”이자 김대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전두환 정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 언론의 총격요법이었다고 밝혔다. <기로에 선 한국>이 독일에서 방송된 이후 독일의 학생들과 가톨릭 사제들은 한국으로 녹화 영상을 밀반입했고 한국어를 덧입힌 녹화본이 은밀히 유포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압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A TV documentary made for German broadcast television, *Südkorea am Scheideweg*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is based on footag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the German journalist Jürgen Hinzpeter was able to secret away to the NDR studio in Tokyo. Jürgen Bertram, a fellow journalist in Japan, scripted the documentary while Hinzpeter edited the footage. Working together, they prepared the documentary in three days, and it was aired on 7 September, 1980, the same day that Kim Dae-jung was charged with conspiracy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was sentenced to death. Hinzpeter has described the screening of this film as a “worldwide protest” against Kim Dae-jung’s death penalty and part of the international press’ galvanizing of political pressure to influence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to give Kim Dae-jung a stay from execution. After its German broadcasting, it is said that students and priests in Germany smuggled copies into South Korea, where it was edited with a Korean voice-over and circulated secretly, contributing to public knowledge of the violent state suppress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에 소개된 『광주 다이어리』 표지.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Detail of *Gwangju Diary* cover in *Spring of Democracy* (2020).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데스크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구성

Spring of Democracy Resource Library
Courtesy of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 Archive, and Gwangju
Biennale Foundation.

Compiled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분석하거나 회고하는 수많은 서적이 출간됐다. «민주주의의 봄»에서는 1980년 당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목격하고 경험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들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자료 데스크에서는 «민주주의의 봄»에 전시된 작품들이 출품됐던 역대 광주비엔날레 도록과 5·18기념재단과 5·18기록관이 제공한 다양한 출판물도 만나볼 수 있다.

A lot has been published analyzing or account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presented books in *Spring of Democracy* are a small selection of what has been written by South Korean and foreign witnesses who were present in Gwangju during the uprising.

Spring of Democracy's resource library also holds catalogues of the different editions of the Gwangju Biennale that include the various presented works in *Spring of Democracy* and publications generously provided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nd the 5·18 archives. A complete list of the books in the resource library with a short description of some of the books can be found on the MaytoDay website.



박태규, <광주탈출>, 2002, 제4회 광주비엔날레 «집행유예»(2002) 전시 광경.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Tae-kyu Park, *Escaping Gwangju* (2002) for the 4th Gwangju Biennale in the section
Stay of Execution (2002).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광주탈출, 2020
포스터
51.5 × 75.7cm
포스터 재인쇄, 2개 버전
배포용 500부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

Escaping Gwangju, 2020
Poster
51.5 × 75.7cm
Reprinted poster, 2 variations
500 copies for takeaway

Commissioned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민주주의의 봄»에서는 박태규 작가의 포스터와 입식 간판,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포스터를 2층과 3층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층에 비치된 포스터는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광주탈출>은 본래 성완경이 기획한 제4회 광주비엔날레 ‘집행유예’에서 구(舊)헌병대 막사에서 전시된 작품이다. 당시 헌병대 식당 입구와 식당 내에 설치된 이 작업은 가상의 영화 <광주 탈출>의 배너와 포스터 등으로 구성됐다. 포스터는 당시 전시 공간으로 사용된 헌병대 식당에서 일어났던 고문과 잔혹한 신문의 기억에서 도망친 하급 사병에 관한, 실제로 제작된 적이 없는 영화를 홍보한다. 작가는 가상의 영화에 대한 포스터뿐 아니라 입간판도 제작했으며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의 사본을 광주시 전역에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In *Spring of Democracy*, Park's posters, his standees and new reprints recur on both floors. On level two, posters that have been updated for this exhibition and are free for the public to take.

Escaping Gwangju was originally presented in a former military police barracks in *Stay of Execution* that was curated by Wan-Kyung Sung. Originally installed at the entrance to and in the dining quarters of the military police, *Escaping Gwangju* included banners and posters of the fictional movie *Gwangju Exodus*. The movie poster paintings advertised a movie that has never been made about a low ranking soldier who escaped the memories of torture and brutal interrogations that were once conducted in the dining quarters where the works of art were placed in 2002. In addition to painted movie posters, Park created standees for the fictive movie and printed paper copies of his painted movie posters that were displayed throughout the city and also given away to the public.



위르겐 힌츠페터 개인 컬렉션 자료 중 디지털 사본. © 위르겐 힌츠페터, 5-18기념재단 제공.
Digitized copy of page from Jürgen Hinzpeter's private collection.
© Jürgen Hinzpeter, courtesy of May 18 Memorial Foundation.

세계의 눈 속에 비친 광주, 1980
사진 스크랩북, 디지털 사본
5-18기념재단 제공
디지털 태블릿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디지털 태블릿에 게재

Gwangju in the Eyes of the World, 1980
Digitized version of photographs and
newspaper clippings from Jürgen
Hinzpeter's private collection
Courtesy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Presented on digital tablet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독일의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는 '푸른 눈의 목격자'로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함부르크 소재 독일 공영 방송 NDR에서 근무하던 그는 5월 20일 광주로 잠입해 계엄군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촬영했다. 힌츠페터는 당시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일본에서 영상을 편집한 후 사진과 영상을 독일로 보냈지만, 국내에서는 1987년까지 군부 독재가 언론을 통제해 진실 보도를 막았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그의 기록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1980년 봄 광주에서 일어난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스크랩북에서 발췌된 사진과 기록물은 힌츠페터 개인 소장품이며 디지털화되어 생전에 5·18기념재단에 기증됐다. 금번 전시에서는 본인이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옮긴 패스티시와 뉴스 보도, 힌츠페터가 수집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힌츠페터는 마치 일기를 적듯 자료를 정리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민주화운동의 전개에 따라 기록을 남겼다.

The German journalist, Jürgen Hinzpeter is fondly remembered by South Koreans as the 'Witness with Blue Eyes'. He worked at Hamburg based Nordeutscher Rundfunk (NDR), part of Germany's public broadcast network. On May 20, he snuck into Gwangju and recorded the brutal massacre of civilians by the military. After editing the footage in Japan, where he was stationed at the time, he later sent his photographs and film to Germany. Until 1987, the military dictatorship controlled the domestic mass media and prevented the national press from reporting the truth. His documenta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made it around the globe made the world aware of what happened Spring 1980 in Gwangju.

The excerpts from the scrapbook are from Hinzpeter's private collection. They were digitized and donated to the May 18th Foundation before his death. These notes include pastiches of Hinzpeter's own photographs, news reportage and other material he collected. The way he organized the material is akin to a diary and it records his own personal understanding of how the uprising unfolded.



백승우, <연상기억법>, 2018,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2018). (제)광주비엔날레 제공.
Seung Woo Back, *A Mnemonic System* at *Imagined Borders*, 12th Gwangju Biennale (2018). Courtesy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연상기억법, 2018
신문에 디지털프린트, 50점
각 39.5 × 54.5cm
작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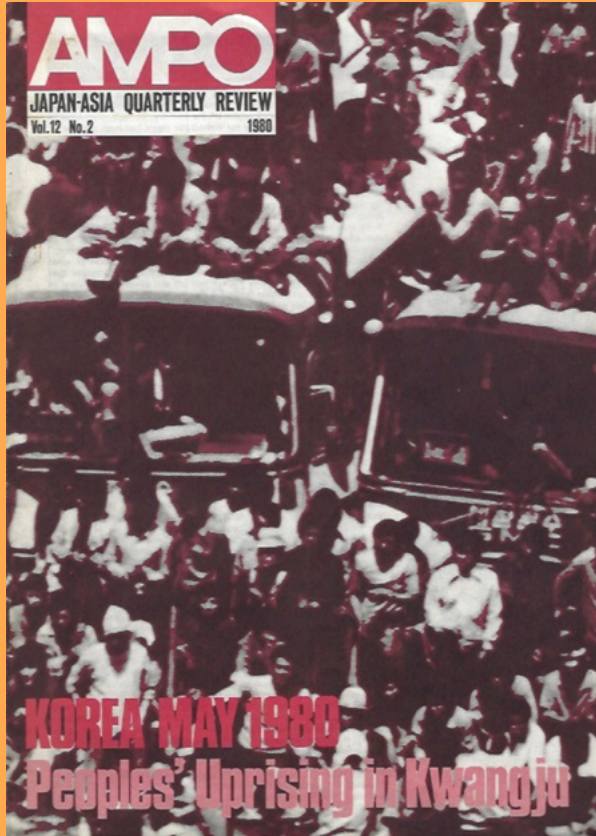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아카이브 스테이션 전시

A Mnemonic System, 2018
50 Digital prints on Newspaper
39.5 × 54.5cm each
Courtesy of the artist

Integrated into archival workstation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제 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2018)에 출품된 <연상기억법>은 광주국군병원 원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신문에 프린트해 비엔날레 기간 동안 설치한 작품이다. 국군광주병원은 특히 전두환 군부로부터 잔혹한 고문과 폭행을 당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암울한 역사의 한 축이 되는 장소이다. 연상기억법의 목적은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작가는 국군광주병원의 잔해를 기록한 흔적들을 통해 개인적인 기억을 소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서 구(舊) 국군광주병원의 현재의 이미지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Presented during *Imagined Borders* (2018), *A Mnemonic System* was a series of photographs taken within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that were printed in the daily newspaper, *Chonnam Ilbo*, and presented as an installation during the biennale. The Gwangju Military Hospital particularly treated those who were brutally tortured and assaulted by Chun Doo-hwan's military, making it part of the dark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 mnemonic system is set up to help one remember. In constructing an 'archive' of contemporary images of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Back sees these photos as a system that helps to retrieve personal memories through the documented traces of ruin in the hospital.



『AMPO: 일본-아시아 계간지』 표지 사진, 12권 2호, 1980, 팀 서록 컬렉션(2020). 팀 서록 제공.
 AMPO Japan-Asia Quarterly Review Cover, Vol.12, No. 2, 1980, from Tim Shorrock's private collection (2020). Courtesy of Tim Shorrock.

팀 서록의 아카이브 문서, 1979-2020
 팀 서록 제공

«민주주의의 불»(2020) 전시의 일환으로
 디지털 태블릿에 게재

Documents from Tim Shorrock's
 archive, 1979-2020
 Courtesy of Tim Shorrock

Presented on digital tablet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팀 서록은 1980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취재해온 미국 기자로, 1996년 미국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 (The Journal of Commerce)』 (1996년 2월 27일자)에 한국의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미 카터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최초로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의 주간지 『시사저널』(현 『시사인』)에도 게재된 이 기사가 알려지면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됐다. 본 전시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서록이 정보의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확보한 4천여 건의 기밀 해제 문서들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회가 발간하고 팀 서록 기자가 젊은 시절 배포를 도왔던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관한 팸플릿(1980년 8월) 사본과 기자와 다른 미국인들에게 민주화운동을 상세히 알려준 일본 잡지 『AMPO』에 게재된 『동아일보』의 분실된 (검열된) 전보(1980년 5월 19일-5월 20일), 기자가 1981년 2월 처음 광주를 방문할 당시에 촬영한 사진들도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록의 기밀 해제 문서 원본은 5·18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다.

Tim Shorrock is an American journalist who has been writing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since 1980. In 1996, Shorrock published an article in the US daily newspaper *The Journal of Commerce* (February 27, 1996) that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e secret background role that US President Jimmy Carter and his administration played in the Korean military's violent suppress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ublic knowledge of this article, which also ran in the Seoul weekly *Sisa Journal* (now *Sisa-in*), sparked student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U.S. Embassy in Seoul. The collection of documents include a selection of his 4,000 declassified documents (including letters to the US President, CIA intelligence assessments and other US government files etc.) that Shorrock obtained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during the 1990s and early 2000s. Original copies of Shorrock's declassified documents are held in the 5-18 Archives.

In addition, the tablet includes Shorrock's copy of a detailed pamphlet published by the Japanese Catholic Council for Peace (August 1980) on the May 1980 Uprising that Shorrock helped to distribute in his youth; the *Dong-A Ilbo's* missing (censored) dispatch published in the Japanese magazine *AMPO* (May 19-May 20 1980), which informed Shorrock and other Americans about the details of the uprising, and a series of photographs that Shorrock took on his first trip to Gwangju in February 1981.



아카이브 스테이션
자작나무
7.5 × 10m

만남의 공간
카펫과 의자
레커 건축사무소 디자인

«민주주의의 봄»(2020) 전시의 일환으로
레커 건축사무소 설계

Archival workstation
Wood
7.5 × 10m

Gathering Place
Carpet and stools

Designed by Lekker Architects for
Spring of Democracy (2020)

관람객은 본 전시를 위해 설계된 다양한 아카이브 스테이션에서 다층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와 아카이브 영상, 보도 기사,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치 광장을 연상시키는 전시장 중앙의 공간은 관람객들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전시를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한데 모일 수 있도록 한다.

The archival workstation designed for *Spring of Democracy* allow the public to engage the diversity and multiplicity of published information, archival footage, reports, and artistic interventions. In addition the central space encourages visitors to congregate, extending the exhibition *Spring of Democracy* from the experience of this seminal historical event of the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to a space that invites the visitor to share and discuss their thoughts and collectivize, if they wish.

참여자 약력 Contributors' Biographies

강연균

강연균(1941년 광주 출생)은 한국 민중미술의 실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작가이다. 1980년 5·18 이후 광주의 현실을 미술을 통해 알리고자 했으며, 1980년대 민중미술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전남일보』 문화부 기자로 재직했고, 이후 로댕화실을 운영하며 수채화로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열어 왔다. 민족 현실의 극복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마음을 담아 창립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지도위원(1988) 및 공동의장(1992~1995)을 역임했다.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때 안티비엔날레를 조직했으며, <광주통일미술제>라는 이름으로 망월묘역 야외 전시에 전국에서 모인 200여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후 광주시립미술관장 겸 광주비엔날레 사무차장(1996~98)을 역임했다. 수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1996년 광주 오월시민상, 1998년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권승찬

권승찬(1973년 장흥 출생)은 유무형적 공공프로젝트의 시민 참여형 작업을 비롯한 융복합적 미디어 설치물 통해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어 왔다. 1999년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후 <안녕하십니까! 권승찬입니다!> <전국 명함발송 프로젝트>, <바셀린 프로젝트 소출력 라디오 방송>(광주·안양·서울 등, 2006~2010), <아주민라디오 방송>(광주 일대, 2015) 등을 진행했다. 2018년 광주미술상, 2012년 하정웅청년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 권승찬 있다>(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18), <멀티미디어 권승찬 전>(갤러리현, 천주교광주대교구청, 광주, 2016) 등이 있다. 최근 참여한 단체전으로는 인도네시아 현대 도자 비엔날레(2019), 일본 삿포로 눈축제 <유키테라스>(2017) 등이 있다.

나경택

나경택(1967년 나주 출생) 기자는 1980년 『전남매일신문』 기자로서 참담한 광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2011년 그가 촬영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사진(흑백 필름 2,017컷)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967년 2월 전남매일신문사 입사 후 언론사 통폐합으로 1980년 광주일보사 차장으로 근무했으며,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사장과 부국장을 역임했다. <한국 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1990)에 참여했고, 용기 있는 기자상(1990) 등을 수상했으며, 40년 동안 사진기자로 보내면서 시대의 궤적을 기록한 책 『앵글과 눈동자』(2007, 사진예술사)를 출간했다.

Yeon-gyun Kang

Yeon-gyun Kang (b. 1941, Gwangju) is a noted *minjung* artist. Afte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 used art to create awareness of the atrocities of Gwangju and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minjung* art in South Korea in the 1980s. From 1969 to 1975, he served as a journalist for the *Chonnam Ilbo* Culture Department. He set up Rodin Art Studio and began to explore the medium guache painting. He has served as the advisor (1988) and co-chairman (1992-1995)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Korean Artists (People's Federation). From 1996-1998,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Gwangju Museum of Art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Gwangju Biennale (1996-98), and participated in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the 1st Gwangju Biennale in 1995, he organized the first Anti-biennale, which was titled *Gwangju Unification Art Festival*. It presented the works of about 200 artists gathered from around the country in the outdoor exhibition at Mangwol-dong Cemetery.

Seung-chan Gwon

Seung-chan Gwon (b.1973, Jang Heung) explores various social issues through (in) tangible public art project, participatory art, paintings, and multimedia installation work. His notable projects include the nationwide name card distribution project, *Hello! This is Gwon Seung-chan!, Baseline Project—Low Power Radio Broadcast* (Gwangju, Anyang, Seoul, and more, 2006-2010), and *Immigrant Radio Broadcasting* (Gwangju, 2015). He received the Gwangju Art Award in 2018 and Ha Jung-wong Youth Artist Award in 2012, and his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Young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Gwon Seung-chan - CONNECTED*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8), *Multimedia Gwon Seung-chan* (Gallery Hyun, Archdiocese of Gwangju, Gwangju, 2016). His work has also been shown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Indonesia Contemporary Ceramic Biennale (Indonesia, 2019), and Sapporo Snow Festival-YUKITERRACE (Japan, 2017).

Kyung-taek Na

Kyung-taek Na (b.1967, Naju) was a reporter and photographer for the *Chonnam Daily Newspaper* in 1980. The photographs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 documented while in Gwangju (2,017 black and white images) have been lis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erving as important documentary evidences. In February 1967, he joined *Chonnam Maeil Newspaper* and from 1980 served as Deputy Director of Gwangju Chonnam Branch and Deputy Director of Yonhap News Agency. Among others, he received the Courageous Reporter Award (1990) and took part in the *Korean Photographers' Association Press Photo Exhibition* (1990). His publications include *Angles & Eyes* (2007, Sajinyesulsa).

노순택

노순택(1971년 서울 출생)은 사진과 글을 매개로 전쟁과 분단이 어떻게 한국사회를 왜곡시켜왔는지 탐색해 왔다. 분단은 '오작동'으로써 작동한다는 게 그의 오랜 생각이다. 분단체제 아래 다양한 권력 집단이 '역사 해석자'로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다루며, 그에 기반을 둔 미래를 구축하려 드는지 관찰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인전으로는 <핏빛파란>(광주시립사진전시관, 광주, 2018), <비상국가 II 제4의 벽>(아트선재센터, 서울, 2017), <시켜서 춘 춤>(43 인버네스스트리트, 런던, 2016)이 있으며, <Actually, the Dead Are Not Dead: Politics of Life>(뫼르템베르 콘스트라바라인 슈투트가르트, 2020), <경계협상>(주 영국 한국문화원, 런던,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미르세아 수치우

미르세아 수치우(1978년 루마니아 출생)는 아크릴과 오일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하며 종종 모노프린트 판화 기법과 결합한 작품을 제작한다. 그는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에서 찾은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결과물을 만든다. 그는 "인간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매료되어, 인간의 본성과 조건에 대한 고찰을 다룬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심리적 면모에 대해 사유한다. 작가는 작품에 차용된 이미지를 통해 사회 속 개인이 대중의 행동을 차용하며 스스로의 개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유니버설 파티그>(블레인 서던 갤러리, 뉴욕, 2020), <더 프랙처>(루마니아 국립현대미술관, 부카레스트, 2017) 등이 있고, 단체전으로는 <라탄 차다 컬렉션>(콘스탈 로테르담 미술관, 로테르담, 2019) 등이 있다.

박태규

박태규(1965년 함평 출생)는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1991년 대학을 마친 뒤 걸개그림, 깃발, 열사도 등의 광주오월 선전미술 제작과 민주연대 지원사업 등 참여미술과 리얼리즘 회화 작업, 환경생태운동 등에 활동해 왔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광주극장에서 영화 간판 그리는 일을 했고, 이와 함께 2000년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 모임'을 결성하여 도시생태환경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과 자운영미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주민미협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극장전 여기 사람이 있소>(광주극장, 광주, 2015), <기억>(잠월미술관, 함평, 전남, 2014) 등이 있고 <오월전: 최면 의도된 상황인식>(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2013), 제5회 광주비엔날레(2004)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Suntag Noh

Suntag Noh (b. 1971, Seoul) is a contemporary artist working in the mediums of documentary and photography. His work explores the resonances of the Korean War on contemporary society and how deeply the division of Korea has permeated the daily lives of the Korean people. He is interested in examining the way in which those with power can interpret history and emphasize war and division as fixed chapters in history.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Bloody Budan Blues* (Gwangju Museum of Photography, Gwangju, Korea, 2018), *The 4th wall - State of Emergency II*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17) and *Dance of Order* (43 Inverness street, London, United Kingdom, 2016). His work has recently been shown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Actually, the Dead Are Not Dead: Politics of Life*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Germany, 2020) and *Negotiating Borders* (Korean Culture Centre UK, London, United Kingdom, 2019).

Mircea Suci

Mircea Suci (b. 1978, Romania) works with different materials such as acrylic and oil and often combines them with monoprint techniques. His works are based on images he finds in newspapers, magazines and other media. Fascinated by what he describes as "the absurd actions of man," Suci's work explores existent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human condition. His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Mircea Suci: Universal Fatigue* (Blain Southern, New York, U.S., 2020) and *The Fractur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charest, Romania, 2017). His work has also been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Trouble in Paradise*, Collection Rattan Chadha (Kunsthal Rotterdam, Netherland, 2019), *Feeling Called Love*. Collection of an Idiot, (Kunstmuseum Bochum, Germany, 2019) and *La Brique, The Brick*, (Cărmăda, La Kunsthalle Mulhouse, France, 2019).

Tae-kyu Park

Tae-kyu Park (b. 1965 Hapyeo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t, Honam University in 1991.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 of propaganda art closely associated Gwangju, Park has produced banner paintings, flags, and painting of martyrs, as part of a broader practice of realistic painting, participatory art, and environmental movement. He is known for hand-painted movie posters produced from 1997 to 2001 at the Gwangju Theater. In 2000, Park established 'Artists Thinking of the Environment', that runs activities related to the urban environment and an art school for children. He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Gwangju Fine Arts Association. His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Theater Exhibition: There Is Someone Here (Gwangju Theater, Gwangju, Korea, 2015), and *Remembrance* (Zamwol Museum, Hapyeong, Korea, 2014). His work has also participated in *May Exhibition: Hypnosis-Intentional Situational Awareness* (Gwangju Museum of Art - Geumnam Street, Gwangju, Korea, 2013) and the 5th Gwangju Biennale.

배영환

배영환(1969년 서울 출생)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전 장르를 넘나들며 문명론적 성찰과 관련된 묵중한 화두를 다루어왔다. 작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행가> 등의 시리즈를 통해 대중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음악의 낭만과 저항의 양면성을 작업에 도입했다. 2005년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등 다수의 주요 국제기획전과 개인전에 참여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배영환 프로젝트 전시»(신세계갤러리, 서울, 2017), «새들의 나라»(플랫폼 얼, 서울, 2016) 등이 있고, 최근에는 «광장: 미술과 사회»(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 «귀신, 간첩, 할머니»(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4)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백승우

백승우(1973년 대전 출생)는 현실과 비현실, 가상과 실제, 보이는 것과 감춰진 것들의 미묘한 경계를 드러내며 사진 매체의 속성을 탐구하는 작가이다. 한국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런던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과 이론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개인전으로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6», «워킹 온 더 라인»(Center A, 밴쿠버, 2015), «블로우 업»(Misashin Gallery, 도쿄, 2011)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절제된 시각»(벨파스트 포토 페스티벌,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2019),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ACC, 광주, 한국, 2018) 등에 참여했다.

오형근

오형근(1963년 서울 출생)은 미국 오하이오 예술대학원에서 사진과 영화 연출을 전공한 후 동시대 사회상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아줌마'라는 타이틀의 개인전을 가졌는데,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주제의 이 전시가 한국에서 아줌마 신드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 사회 특정 인물군의 유형을 다루는 초상 작업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공통된 불안감이나 욕망 또는 정체성의 혼란에 주목해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중간인»(아트선재센터, 서울, 2012), «코스메틱 걸스»(국제갤러리, 서울, 2008) 등이 있으며, 2005년에는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3부»(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0)과 «에이징 월드(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Bae Young-hwan

Bae Young-hwan (b. 1969, Seoul) uses a wide range of media including painting, sculpture, installation and video work to explore heavy themes that evoke introspective responses to civilization theories. Since the late 1990s, he has incorporated the double-sided nature of romance and resistance in popular music in his works, including *Pop Song* series. 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major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the 51st Venice Biennale in 2005.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Bae Young-hwan: Project Exhibition* (Shinsegae Gallery, Seoul, Korea, 2017), *Pagus Avium*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Seoul, Korea, 2016). His work has also been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Square: Art and Society in Korea* (MMCA, Seoul, Korea, 2019),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Korea, 2014).

Seung Woo Back

Seung Woo Back (b. 1973, Daejeon) unveils the subtl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virtual and real, and the seen and unseen, experimenting with photography as a media. Back studied photography in Korea and later received degrees in Fine Art and Art Theory from Middlesex University, London. He is also a photograph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 Design at Hongik University. His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Artist of the Year 2016* (MMCA, Seoul, Korea, 2016), *Walking on the Line* (Center A, Vancouver, Canada, 2015), *Gaps, Unrealistic Generals*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12), *Blow Up* (Misashin Gallery, Tokyo, Japan, 2011). His works have been also presen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Controlled Perspectives* (Belfast Photo Festival, Belfast, Northern Ireland, 2019) and the 12th *Gwangju Biennale, Imagined Borders* (ACC, Gwangju, Korea, 2018).

Heinkuhn Oh

Heinkuhn Oh (b. 1963, Seoul) majored in photography and film at Ohio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rt and started his career as a documentary photographer, capturing social landscapes of the time. In 1999, his solo exhibition *Ajumma, Portraits of Middle-aged Women in Korea* helped identify 'Ajumma Syndrome' in Korea. Since then, he has focused on documenting specific groups of people revealing common desires and anxieties that prevail in Korean society.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Middleman*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12), *Cosmetic Girls* (Kukje Gallery, Seoul, Korea, 2008). In 2005, he participated in the Korean Pavilion of the 51st Venice Biennale. His work has been recently present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The Square: Art and Society of Korea 1900-2019 Part 3*. (MMCA, Seoul, Korea, 2020) and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SeMA, Seoul, Korea, 2019).

이불

이불(1964년 영주 출생)은 20세기 문화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적인 성 역할에서부터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의 실패에 대한 인식 등 광대한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그의 작업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비평론, 미술사, 공상과학소설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였지만 곧 퍼포먼스 등 다른 매체로 전향한 작가는 1990년대 기계와 유기체의 혼종인 사이보그 시리즈 조각 작업으로 미술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압도적인 설치 작업을 통해 미래를 조망하는 내러티브와 진보의 개념이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세계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있다. 1987년 홍익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의 SCAD 미술관(2019), 최근에는 영국 런던의 헤이워드미술관(2018), 독일 베를린의 그로피우스바우 미술관(20182019)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다. 최근에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는 «팬텀기, 미래 속 사이버펍크»(타이쿤 컨템포러리, 홍콩, 2019)와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2019) 등이 있다.

이창성

이창성(1943년 공주 출생)은 1966년 『신아일보』 사진부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30여 년간 사진기자이자 데스크 에디터로 활동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에 특파되어 시민군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취재 및 기록했으며, 민간인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1995년 지면에 공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광주항쟁 사진은 항쟁을 기록한 사진 중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5년 한국기자상(사진보도부문)을 수상했고 상명대 사진학과와 뉴미디어 교육센터 강사 및 한국언론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임민욱

임민욱(1968년 한국 출생)은 설치, 글, 음악,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근대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에서 장르적 구속과 규정을 벗어나려는 수학적 형식들을 통해 아이러니를 배태한다. 그의 작품은 전 지구화가 강화시킨 분리와 정체성의 문제들을 미디어의 조건을 통해 탈영토화하는 데 도전한다. 이동 수단과 열감지 카메라, 방송국 포맷 등을 차용해 속도, 온도, 애도의 장면성을 포착해왔다. «오 탄넨baum 퍼포먼스 프로젝트»(ASAKUSA 스페이스 프로젝트, 도쿄, 2018), «임민욱 개인전»(티나킴 갤러리, 뉴욕, 2017), «만일의 약속»(플라토 삼성미술관, 서울, 2015)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리버풀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 시드니비엔날레, 타이페이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에 참여한 바 있다.

Lee Bul

Lee Bul (b. 1964, Yeongju) creates works that reflect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20th-century cultural history. Exploring issues ranging from societal gender roles and the failure of idealism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technology, she produces genre-bending works rooted in critical theory, art history and themes from science fiction. Lee Bul was academically trained in sculpture but her interest expanded into other media, such as performance art. Through her installations, she investigates how visionary narratives and notions of progress affect the way our world is structured both in the present and future. Lee Bul received a BFA in sculpture from Hongik University, Seoul, in 1987. She has had retrospective exhibitions organized at the SCAD Museum of Art, Savannah, GA (2019) and Martin Gropius-BauArt, Berlin, Germany (2018-2019). Her work has recently been included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Phantom Plane, Cyberpunk in the Year of the Future* (Tai Kwun Contemporary, Hong Kong, 2019) and the 58th Venice Biennale (2019).

Chang-seong Lee

Chang-seong Lee (b.1943, Gongju) was a journalist for the *Shin-A Ilbo* photography department in 1966. After working in the media, he worked as a photographer and desk editor for 30 years before retiring. In May 1980, he was dispatched to Gwangju to report and record the activities of the civilian forces. His photograph of a civilian being shot by paratroopers during the uprising was published in 1995, shocking the public. His photographs have been described as the fairest and most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Gwangju uprising and its atrocities. In 1975, he received the Korean Journalist Award (Press Photo section). He served as a lecturer at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at the Sangmyung University and at the New Media Education Center and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 Press Association.

Minouk Lim

Minouk Lim (b.1968, South Korea) works in various media including installation, text, music, video and performance. Lim creates irony through performative forms that defy the definition and boundaries of specific genres. By exploring the conditions of our media environment, Lim's oeuvre attempts to de-territorialize issues of identity and division aggravated by globalization. Her works employ a wide range of equipment, such as transportation vehicles, thermal imaging cameras, and broadcasting devices, in order to capture and visualize the speed, warmth and emotion of mourning. Her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O Tannenbaum* (ASAKUSA space production, Tokyo, Japan, 2018), *Mamour_Minouk Lim* (Tina Kim Gallery, New York, U.S., 2017) and *The Promise of If*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 Her work has also been in such group exhibitions as La Biennale de Lyon (2019), the Setouchi Triennale (2016), Sydney and Taipei Biennial (2016).

위르겐 베트람

위르겐 베트람(1940년 독일 출생)은 언론인이자 작가이다. 그는 독일의 지역 공영방송인 ARD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아시아에서 13년간 활동하는 동안 싱가포르와 베이징 등지에 해외 특파원으로 배치되었다. 2000년 언론계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독일 언론사, 『슈피겔』지를 비롯한 다수의 일간지에서 활동했다. 또한 그는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영화도 제작했다. 그는 언론계 동료인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원본 영상 편집 및 준비를 도와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TV 다큐멘터리 제작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물은 같은 해 9월에 방영되었다.

위르겐 힌츠페터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 독일 출생)는 독일의 언론인이자 사진가이다. 그는 한국의 사회 상황을 다른 보도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와 후대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힌츠페터는 1963년부터 독일의 지역 공영방송인 ARD의 기자로 활동했으며, 1973년부터 1989년까지는 ARD 도쿄지부에서 근무했다. 도쿄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ARD의 일본 특파원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980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촬영한 유일한 언론인이었다. 그가 당시 촬영한 영상은 독일에 전달되어 방송되었고 외국의 다른 언론들도 이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일명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그는 1995년 언론계에서 은퇴했다.

쿠어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

쿠어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2012년 멕시코시티 결성)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룹과 기존에 존재하던 예술가 집단이 힘을 합쳐 공통의 가치와 견해를 드러내고 조직력을 보탠 새로운 방식으로 자생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그들은 2013년 봄 자가 출판과 집단적인 연구에 전념할 공간과 시간을 위해 ‘에디토리얼 운동’을 멕시코시티의 카사 델 라고에서 기획 및 추진했으며, 이후 그 경험과 예술 협력 네트워크의 도움을 바탕으로 크라네오 인버티도(Cráneo Invertido)라는 소규모 언론을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연속성; 함께 혹은 따로 ... 진정한 상상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그들은 율로를 알바라도, 후앙 칼로카, 사리 데니스를 비롯한 다수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직 멤버로는 마이크 달리, 니콜라스 윌스 등이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2015)와 자카르타비엔날레(2015) 등이 있다.

Jürgen Bertram

Jürgen Bertram (b.1940, Germany) is a journalist and author. He worked as a journalist for ARD, Germany's regional public-service broadcaster, for 13 years in Asia. He was stationed in Singapore and Beijing as a foreign correspondent. After which he returned to Germany to work for the German press agency, the magazine *Der Spiegel* and several daily newspapers until his retirement in 2000. Bertram wrote several books and made films. He famously assisted Jürgen Hintzpeter in editing and preparing his footage of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for worldwide broadcast as the TV-documentary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Jürgen Hinzpeter

Jürgen Hinzpeter (1937-2016, Germany) was a German journalist and photographer. He is best known for his coverage of South Korea and specifically his coverag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inzpeter was a reporter for the ARD, Germany's regional public-service broadcaster from 1963. He worked for the Tokyo branch of the ARD from 1973 to 1989 and during this time travelled to South Korea a number of times as ARD's Japanese correspondent. He was the only journalist to film the Gwangju uprising in 1980. His footage was delivered to Germany and broadcasted worldwide, making the world aware of the atrocities of Gwangju. He retired from journalism in 1995.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est. 2012, Mexico City) developed out of a warehouse where affinity groups and existing collectives— GrupoDe, Siempreotravez, Biciperras—decided to join forces and share a space for creating organizational threads. In the spring of 2013, they developed a space and time dedicated to self-publishing and collective study - an “Editorial Movement” at Casa del Lago - and developed a small press named Cráneo Invertido with the assistance of the Arts Collaboratory network.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describes itself as “continuity; together or separately... a real imaginary process.” Cráter Invertido currently consists of Yolotl Alvarado, Juan Caloca, Sari Dennise, among others. Former members include, among others, Maik Dally and Nicolas Wills. Their work has recently been shown at group exhibitions such as the 56th Biennale di Venezia (2015) and the Jakarta Biennale (2015).

팀 셔록

팀 셔록(1951년 미국 출생)은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자이다. 선교사이자 구호 활동가인 부모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1996년, 미국 카터 정부가 1980년 광주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기밀 문건을 공개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 20년간 『더 네이션』지의 특파원으로 국가안보와 동아시아에 관해 취재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한반도와 미국 간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그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를 해 왔으며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살롱』, 『더 프로그레시브』, 『워싱턴포스트』, 『인터프레스 서비스』 등에도 기고해 왔다. 2015년에는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홍성담

홍성담(1955년 신안 출생)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9년 광주자유미술인회 조직에 참여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투쟁하는 선전요원으로 활동했다. 그 경험이 파동이 되어 한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작가는 1983년 민중미술의 첫걸음이 된 시민미술학교를 개설하게 된다. 민중미술운동의 주요 일원으로서 홍성담의 목판화는 5·18민주화운동을 예술로 나타낸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또한 그는 지역 간 연대 창작물인 걸개그림 <민중해방운동사> 작품 슬라이드를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1989년 7월 체포되었다. 1990년 국제엠네스티 본부에 의해 세계의 3대 양심수로 선정된 그는 1990년 초 석방되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야스쿠니의 미망2»(아트스페이스C, 제주, 2008), «뉴욕교류전: 저항과 명상»(뉴욕 퀸즈미술관, 뉴욕, 2003) 등이 있고, 단체전으로는 «금지된 이미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통제와 검열»(NGBK, 베를린, 2015)이 있다.

Tim Shorrock

Tim Shorrock (b.1951, U.S.) is a Washington-based journalist. He grew up in Japan and South Korea, where his parents worked as missionaries and relief workers. He is well-known in South Korea for revealing, in 1996, the secret background role played by the Carter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military's violent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in 1980. For the past 20 years he has been a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on national security and East Asia and since 2017 has been closely covering the Korea peace proces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Koreas. In Korea, he has written extensively for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ver the years, his work has been featured in *The New York Times*, *Salon*, *The Progressive*, *The Washington Post*, and *Inter Press Service*. In 2015, he was named honorary citizen of the city of Gwangju.

Hong Sung-dam

Hong Sung-dam (b. 1955, Sina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Chosun University, and participat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Gwangju Free Artists Association' in 1979. He took part i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Chun Doo-hwan's military dictatorship and became politically active. He established a 'People's Art School' in 1983. He is a renowned member of the *minjung* art movement and his woodcut prints have become synonymous with the May 18. In July 1989, he was arrested for allegedly break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when he sent slides of artworks by South Korean artists to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adopted him as a prisoner of conscience and h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the early 1990s. His solo exhibitions include *Illusions of Yasukuni Shrine 2* (Art Space C, Jeju, Korea, 2008) and *Resistance and Meditation - Hong Sung-dam* (Queens Museum of Art, New York, U.S., 2003). His works have also been shown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Verbotene Bilder - Kontrolle und Zensur in den Demokratien Ostasiens* (Neue Gesellschaft für Bildende Kunst (NGBK), Berlin, Germany, 2015).

광주 오월목판화 — 항쟁의 증언

김진하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불의하고 폭력적인 군부와의 저항과 투쟁, 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라는 명분과 시대정신은 1980년대를 종횡으로 가로질렀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성과 미학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중에서도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발화점인 광주에서의 직접적 항쟁의 체험과 기록과 기억은, 미술 이전 인간 존재와 정치권력의 합목적성, 그리고 시민계급에 대한 자각과 세계정신인 인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현실주의적 리얼리즘’ 민중주의적 민주성, 그리고 실존적 동시대성을 담보하고 증언하는 자생적 작품을 생산했으며, 동시에 독자적인 이념과 양식의 조형적 결과물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목판화는 가장 두드러진 장르로 당대를 기록하고 증언했다. 특히 항쟁의 현장인 광주의 80년대를 관통한 그것은 미술사적으로도 가장 두드러진 저항미술의 한 예이기도 하다. 서술이든 묘사든 압축된 형상이든 간에, 광주에서의 목판화는 그런 미술운동의 핵심적 미디어로 동시대 부조리에 저항하는 혁명의 시각 기제로 작동했었다. 목판화 특유의 강력한 표현성과 복제적 대중성으로 폭력적 죽임에 대한 패배와 절망을 극복하며, 세계 시민성-보편적 인권-평화에 대한 인간다움과 희망을 의식 깊숙이 새긴 것이기도 하다. 선동적 구호로, 서정적인 감성으로, 서사적인 기록으로, 역사적 민중성의 체현으로 8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 자주, 노동, 통일, 계급 등에 대한 모순에

The May Woodcut Print of Gwangju — A Testimony of Resistance

Jinha Kim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0 in Gwangju brought enormous change to many aspects of Korean society. Under the influence of an unjust and violent military dictatorship, the spirit of the 1980s was imbued with incessant civil resistance and practices of social activism aiming to overthrow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achieve a democratic society. In turn, the impact of political and social unrest influenced the way that Korean contemporary art and its aesthetics have evolved. The experiences, recordings, and memories of those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uprisings in Gwangju cast a light on fundamental questions about mankind as a whole: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the purpose of political power, the extent to which we are aware of social hierarchies, and the ways we value universal human rights. Within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mmotion of the 1980s, artworks were produced which promote the aesthetic of ‘realistic realism’ and ideas of populist democracy and existential contemporaneity. The political climate of 1980 in Korea gave rise to a distinctive discipline with notable ideological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Among the work of the time, woodcut prints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enres, distinctly testifying to this period of socio-political unrest. In particular, the woodcut prints of the conflict-ridden city of Gwangju have emerged as a crucial example of resistance art in Korean art history. Through narrative portrayals, depictions of scenes and symbolistic images,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던지는 실천이자 사회적·미학적 미술운동이기도 했다. 상처가 클수록 각인된 표현은 깊다. 그것은 광주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반성을 동반했다. 죽임과 살림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 인문적 통찰, 그리고 정치·사회적 실천의 미학적 단초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의 특별 섹션에 초대된 광주의 목판화는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의 체험-저항-기록-증언-정서를 지속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물들이다. 작가 자신, 이웃,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80년대 민주화운동 전체 과정에서 그 발화점인 5.18민주화운동의 전형성을 담보해냈다. 모두 작가 개별적인 목판화 형식이 공동체적 울림으로 전유되고 확대되는 작품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급변화로 기획 규모와 형태가 어쩔 수 없이 축소되어 아쉽지만, 향후 광주 목판화의 전모가 전국적으로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트선재센터 2층에 마련된 목판화 섹션은 나무아트에서 확대된 전시로 이어집니다.
전시장소: 나무아트(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41)
전시기간: 2020. 6. 3. - 6. 30.

The woodcut prints section at Art Sonje Level 2 is continued at Namu Artist Space.
Exhibition Location: Namu Artist Space (Insadong-gil 54-1, Jongno-gu, Seoul)
Exhibition period: 3 June - 30 June, 2020

the woodcut prints functioned as one of the central visual mechanisms of revolution against state violence. The duplicability and powerful expression of these woodcut prints played a key role in enabling Korean society to overcome defeat and despair in the face of the state's violent acts of killing. The prints also engendered a sense of hope and a global civic attitude, declaring principles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peace. Through provocative slogans, poetic sensibilities, and narrative portrayals, the woodcut prints pose persistent questions to the issues and paradoxes within democracy, independence, labour, reunification, and social hierarchy in Korean society. The greater the wound was, the deeper the engraved expression became. And that wound prompted critical reflection on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which went beyond the parameters of Gwangju. The woodcut prints behaved as ontological reflections on the act of killing and sparing lives, a mechanism of humanistic introspection, and as artistic matrixes of socio-political practices.

Included in a special section of *Spring of Democracy*, the woodcut prints from Gwangju masterfully weave together the experience and spirit of resistance found in the recordings, testimonies, and sentiments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hile vividly capturing their own anger and pain, as well as that of the impacted citizens of Gwangju and the greater Honam region, the artists invite viewers to understand the reach and implications of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prompted many subsequent civil resistances. It is unfortunate that the exhibition had to be reduced due to COVID-19, but it is my hope that the woodprints from Gwangju will be introduced throughout Korea in the near future.



조진호
오월의 소리, 1980
리놀륨판화
35 × 24cm

Jin-ho Cho
Sound of the May, 1980
Linoleum block print on paper
35 × 24cm



김진수
진혼곡, 1998
채색목판화
130 × 42cm

Jin-su Kim
Requiem, 1998
Polychrome woodcut print on paper
130 × 42cm



최상호
화려한 휴가 2, 1987
목판화
36 × 36cm

Sang-ho Choi
Beautiful Holiday 2, 1987
Woodcut print on paper
36 × 36cm



이상호
죽창가, 1987
목판화
45 × 67cm

Sang-ho Lee
Song of bamboo spear, 1987
Woodcut print on paper
45 × 67cm



전정호
 시민군, 1986
 고무판화
 45 × 38cm

Jeong-ho Jeon
Militia, 1986
 Linoleum block print on paper
 45 × 38cm



김경주
 망월, 1987
 목판화
 60 × 43cm

Kyung-joo Kim
Full moon, 1987
 Woodcut print on paper
 60 × 43cm



정희승
 포장마차에서, 1985
 목판화
 92.9 × 49.5cm

Hee-seung Jeong
At the street stall, 1985
 Woodcut print on paper
 92.9 × 49.5cm



김병하
 해방, 그날을 위해 투쟁하자, 1988
 목판화
 23 × 30cm

Byeong-ha Kim
Let's struggle for the day of Liberation,
 1988
 Woodcut print on paper
 23 × 30cm



이강하
오월-2, 1984
목판화
26.5 × 37cm

Kang-ha Lee
The May-2, 1984
Woodcut print on paper
26.5 × 37cm



한희원
아리랑, 1983
종이에 잉크
30 × 101cm

Hee-won Han
Arirang, 1983
Ink on paper
30 × 101cm



김영만
오월 무등에 자비의 달빛이, 1994
다색목판화
18 × 23cm

Yeong-man Kim
Merciful Moonlight on Mudeung of May, 1994
Polychrome woodcut print on paper
18 × 23cm

참여자 약력

Contributors' Biographies

김경주

김경주(1957년 한국출생)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12회의 개인전, 5회의 국외 초대전, <불법압류 판화전>(서울, 한국, 1991), <안티광주비엔날레>(광주, 한국, 1995) 등 100여회에 걸친 다수의 국내기획전에 참여하였다. 동신대학교 박물관장,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프랙털로부터 미의 추출』(2008), 『문화기획용어사전』(2013) 등이 있다. 현재는 아시아커뮤니티 문화재단 이사, 시민문화회의 운영위원장, 동신대학교 공연전시기획학과 교수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김병하

김병하(1969년 고흥 출생)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다니면서 전남대 미술패 '불나비'와 그림패 마당 활동을 했으며, 대학생활 내내 걸개그림, 판화, 만화 등으로 미술선전대 활동을 하였고, 졸업 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에서 활동했다. 이 후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어린이 책과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며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그림책 『고라니 텃밭』, 『우리 마을이 좋아』 등이 있다.

김영만

김영만(1949년 전남 화순 출생)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마쳤으며, 한국전통 목판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DMZ 주제 통일·염원 목판화>, <민족미술>,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주요 저서 활동으로는 『봄날을 희망하며』(2008), 『고향가는길 II 목판화, 글 모음집』(2020) 등이 있다. 현재 고흥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김진수

김진수(1956년 광주 출생)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1980년대 초 <한국미술 105인에 의한 삶의 미술>(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1984)과 <한국미술, 20대의 힘>(아람미술관, 서울, 한국, 1985)에 참여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첫 개인전(1985)은 당국의 탄압으로 서울전이 축소되고 광주전은 무산되었다. 이후 광주목판화연구회 창립(1987)과 판화운동,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립(1989)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참여 전시로는 <민중미술 15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경기도, 한국), <오월 -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13) 등이 있다.

Kyung-joo Kim

Kyung-joo Kim (b. 1957, South Korea) studied and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Art at Chosun University and has participated in many exhibitions including twelve solo exhibitions. He has been invited to five overseas exhibitions, namely *Illegally Confiscated Prints Exhibition* (Seoul, Korea, 1991), *Anti-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1995).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Dongshin University Museum, president of Gwangju National Artists Association and a board member of Korean National Artists Association. His books include *Extraction of Beauty from Fractal* (2008) and *Curatorial Terminology Dictionary* (2013). He is currently a board member of the Asia Community Culture Foundation, operating committee of the Citizen Culture Conference, and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Planning at Dongshin University.

Byeong-ha Kim

Byeong-ha Kim (b. 1969, Goheung) studied at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wit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member of the university's artist collective activities, including those known as *Bulnabang* and *Geurimpae madang*. During these years, he was actively engaged in the practice of propaganda art such as hanging mural paintings, prints, and cartoons, and then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Minjung Art Movement Association. After graduating from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at University of Seoul, he has been working as an illustrator for children's books and picture books. His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the picture books, *Elk's Garden* and *I Like My Village*.

Yeong-man Kim

Yeong-man Kim (b. 1949, Hwasu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nd has been conducting constant research on Korean traditional woodcut prints.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such as *DMZ: Unification, Hope, Woodcut, National Art Exhibition* and his main books are *Hope for Spring Day* (2008), *The road back hometown II Woodcut, Writing Collection Exhibition* (2020) etc. Currently, Kim is working on his artworks in his hometown.

Jin-su Kim

Jin-su Kim (b. 1956, Gwangju) majored in 'western painting' during his university years, and started his artistic career with his participation in *The Art of Life by 105 Korean Artists* (Kwanhoon Art Museum, Seoul, Korea, 1984) and *Korean Art, Power of the generation of 20s* (Arab Art Museum, Seoul, Korea, 1985).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1985 was a target of the repression exercised by the authorities, and in turn his exhibitions in Seoul and Gwangju were reduced and canceled. Since then, he ha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Gwangju Woodcut Association (1987), printmaking movement, and the Gwangju Chonnam Artist Community (1989). He has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The 15 Years of Minjung Art* (MMCA, Gwacheon, Gyeonggi-do, Korea, 1994) and *May-1980s Gwangju Minjung Ar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13).

이강하

이강하(1953-2008, 영암 출생) 1980년 조선대학교 1학년 재학 중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는 학생과 시민을 목격하고 헌수막과 피켓을 제작하고 사람들을 모아 계엄군에 맞섰다. 포고령 위반, 특수강도 등의 지명수배, 구속 등 1년 여간 고초를 겪었다. 생전 개인전 11회와 <민중미술 15년>(국립현대미술관, 한국) 및 제1회 광주비엔날레 한국관 초대전시 등 100여회의 단체전 참여, 8권의 화집을 발간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에 문화유산으로 기증되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상호

이상호(1961년 광주 출생)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역사의 길목에 서서>(DS갤러리, 광주, 한국, 2015), <연필로 그린 부처님 이야기>(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광주, 한국 2018) 등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오월미술제 직시, 역사와 대면하다>(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한국, 2020), <저항과 기억>(나빌레라미술관, 나주, 한국, 2019) 등 최근까지도 다양한 단체전에 참가하며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정정호

정정호(1960년 신안 출생)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각매체연구회, 민족미술협회회,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던 중 <백두의 산자락> 걸개그림으로 국가보안법 구속 이후에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으로 탄압과 수배를 받아오는 등 농촌, 노동현장 미술운동에 전념해왔다. <여·순항쟁 평화미술>(순천대학교박물관, 한국, 2019), <5-18 40주년 기념 오월포스터>(갤러리 생각상자, 광주, 한국, 2020) 등 최근까지도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미술관 프로젝트> 참여 및 아시아목판화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희승

정희승(1963년 광주 출생)는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목판화 3인전> 이후 여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그 외 <민중 書, 민주 花>(은암미술관 - 제 40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특별전, 광주, 한국, 2020), <오월미술제>(미로센터 무등갤러리, 광주, 한국, 2020) 등 최근까지도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는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Kang-ha, Lee

Lee Kang-ha (b. 1953-2008, Yeongam) witnessed students and citizens getting beaten up by martial law forces when he was a first-year student at Chosun University in 1980. He produced banners and pickets and gathered people to fight against the martial law forces. For about a year, he was being wanted for and suffered from imprisonment when he was charged on alleged violation of decree and special robbery. He has held eleven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100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15 Years of Minjung Art* (MMCA, Gwacheon, Korea, 1994) and the Korean Pavilion at the inaugural Gwangju Biennale (1995). He also published eight books on art. His works are still revered as impressive pieces of mastery and have been donated as cultural heritage to the *Lee Kang-ha Art Museum*, located in Nam-gu, Gwangju, Korea.

Sang-ho, Lee

Sang-ho Lee (b. 1961, Gwangju)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Chosun University, and had his solo exhibitions such as *Standing on the Crossroad of History* (DS Gallery, Gwangju, Korea, 2015), *The Story of Buddha Painted with Pencil* (Mugaksa Lotus Gallery, Gwangju, Korea, 2018), and has been actively carrying out his practice including participation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The 40th Anniversary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May Art Festival Face up to the History*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 Geumnamro Gallery, Gwangju, Korea, 2020), and *Resistance and Memory* (Nabillera Art Museum, Naju, Korea, 2019).

Jeong-ho Jeon

Jeong-ho Jeon (b. 1960, Sinan) graduated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Chosun University's College of Fine Arts. He was arrested and convicted for the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when he was an active participant at the Gwangju Visual Media Research Association, National Art Council, and National Minjung Art Movement Association because of his banner painting *Foot of Baekdu Mountain*. Even after the release, he continued to be wanted because of his banner painting about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and devoted himself to the art movements in rural and labor fields. He has participated in many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Yeosu & Suncheon Uprising Peace Art Exhibi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Museum, Suncheon, Korea, 2019) an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Poster Exhibition* (Thinking Box Gallery, Gwangju, Korea, 2020). Currently, he is participating in the *Art Museum Project for Human Rights and Peace in East Asia* and serving as the head of the Asia Research Institute of Woodcut.

Hee-seung Jeong

Hee-seung Jeong (b. 1963, Gwangju)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Honam University and had a trio exhibition in 1985 with other woodcut print artists. Ever since, he has participated in many solo exhibitions. He has also participated in many group exhibitions including a special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People's Paintings, Democracy Flower* (Eunam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20), *May Art Festival* (Miro Center Mudeung Gallery, Gwangju, Korea, 2020).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member of National Artist Association and Gwangju National Artist Associations' Alliance.

조진호

조진호(1952년 광양 출생)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수채화협회 아카이브 - '남도의 빛'>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광주, 한국, 2018), <광주미술 어제와 오늘>(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 한국, 2015)등 수십 여회의 개인전 및 수백 여회의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광주시립미술관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광주 어머니상, 대동미술상을 수상하였고, 현재는 광주미술상 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상호

최상호(1953년 함평 출생)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광주, 전남목판화연구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통일미술제>(광주, 한국, 1997)를 비롯한 <민중미술 15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1994), <오월 -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광주시립미술관, 한국) 등 개인전 5회, 2인전 3회, 단체 및 초대전 120여회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민족미술인협회와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으로서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희원

한희원(1955년 광주 출생)은 1970년대 후반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다니며 그 시절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양림교회에서 펴박 받은 가난한 사람들을 주제로 작업하였다. 이후 1980년 초반부터 전남 동부지역 농촌을 중심으로 작가가 직접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장터전>을 열어 구레장터, 화개장터, 광양, 순천장터에서 농민과 소외받은 시골사람과 만나는 전시회를 열었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광주 목판화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미술로 활동하였다. 현재에는 2015년 광주 양림동에 한희원미술관을 개관하여 시민과 만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 <시점시점 경기아트프로젝트 임술년 전>(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2019)에 참여하였다.

Jin-ho Cho

Jin-ho Cho (b. 1952, Gwangyang) studied Art Education and graduated from Chosun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He has participated in dozens of solo exhibitions and hundreds of group exhibitions such as Gwangju Chonnam Watercolor Association's Archive Exhibition, *Light of Namdo* (Ha Jung-woong Museum,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18), *Gwangju Art's Yesterday and Today* (Gwangju Museum of Art, Sangrok Gallery, Gwangju, Korea, 2015).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Gwangju Museum of Art and board member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He is also a recipient of the Gwangju Mother Award and Daedong Art Award. He is currently a board member of the Gwangju Art Award.

Sang-ho Choi

Sang-ho Choi (b. 1953, Hampyeong) graduated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Chosun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He has participated in five solo exhibitions, three duet exhibitions and about 120 group exhibitions including *Gwangju, Chonnam Woodcut Association Exhibition, Gwangju Biennale Special Exhibition-Gwangju Unification Art Festival* (Gwangju, Korea, 1997), *The 15 Years of Minjung Art* (MMCA, Gwacheon, Korea, 1994), *May-1980s Gwangju Minjung Ar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13). To this day, he is continuing to work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rtist Association and Gwangju Art Awards Committee.

Hee-won Han

Hee-won Han (b. 1955, Gwangju) studied at the Department of Art at Chosun University in the late 1970s and worked on the subjects of the poor who were persecuted at the Yangnim Church against the dictatorship. Since the early 1980s, the artist has held exhibitions in the Gurye Market, Hwagae Market, Gwangyang Market, and Suncheon Market where the artist met farmer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of small villages, focusing on rural areas in eastern Jeollanam-do. The artist was a member of the Gwangju Chonnam Artist Community and Gwangju Research Institute of Woodcut, and worked as a *minjung* artist resisting dictatorship. In 2015, the artist opened the Han Heewon Museum of Art in Yangnim-dong, Gwangju. Han has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Viewpoint & Viewpoint, Gyeonggi Art Project, Imsulnyeon*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Korea, 2019).

큐레이터 약력 Curators' Biographies

우테 메타 바우어

우테 메타 바우어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현대미술센터(NTC CCA)의 창립 이사이자 동 대학 예술디자인미디어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3년까지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건축 및 기획 학부 부교수로 재직했다. 제11회 캔셀도큐멘타(2001~2002)에선 총괄 디렉터인 오쿠이 캐롤린과 공동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제3회 베를린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했다. 2015년에 폴 하 MIT 시각예술 감독과 공동 기획한 미국관의 조안 조나스 전시는 베니스비엔날레 국가별 부문 특별 표창을 수상했다. 바우어는 2006 광주비엔날레 국제심사위원, 2011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코스의 지도교수로 참여했다. 이후 2012년에는 (재)광주비엔날레와 비엔날레 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세계 비엔날레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후 한루와 함께 공동대표로 기획했다.

캐슬린 딛지그

캐슬린 딛지그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예술디자인미디어부 박사 후보생이다. 우테 메타 바우어 교수의 지도 아래 동남아시아의 냉전 전시 역사에 대해 연구 중이며, 냉전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코넬대학교와 다카 예술 서밋이 공동주최한 게티 재단의 미술사 프로젝트: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근대미술사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김진하

김진하는 대안공간 나무화랑의 대표이자 목판화 전문가이다. 1984년 한강미술관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1988년부터는 한선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나무화랑 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주)아트 컨설팅 서울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목판화에 대한 주요 저서로는 『김상구 목판화 자원으로, 나무를 닦아가다』(한길아트, 2009), 『출판미술로 본 한국근현대목판화 1883 2007: 나무거울』(우리미술연구소 품, 2007)이 있다. 이 외에도 현대미술에 관한 다수의 평론과 책을 발표하며 목판화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Ute Meta Bauer

Ute Meta Bauer (b. Germany/Singapore) is a curator and since 2013, has been the Founding Director of NTU Centre for Contemporary Art Singapore and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Art, Design and Media. Prior to moving to Singapore, she was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ambridge, MA. She was a co-curator of Documenta11 on the team of Okwui Enwezor (2001/2002) and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3rd Berlin biennale for contemporary art (2004). In 2015, she co-curated with MIT List Centre for Visual Art Director Paul Ha the US Pavilion at the 56th Venice Biennale featuring video and performance pioneer Joan Jonas, which received Honorary Mention for best National Pavilion by the Biennale's International Jury. Bauer was also a member of the Gwangju Biennale International Jury in 2006, and in 2011 taught its International Curator Course. In 2012 she was Co-Director with Hou Hanru of the World Biennale Conference No.1, jointly organized by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and the Biennial Foundation at the Kim Dae Jung Convention Centre, Gwangju.

Kathleen Ditzig

Kathleen Ditzig (b. Singapore) is a curator and PhD Candidate at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School of Art, Design and Media, where she is supervised by Ute Meta Bauer. She researches Cold War exhibitionary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writes about the Cold War's contemporary resonances. She was most recently a research fellow in the Getty Foundation's *Connecting Art Histories Project: Connecting Modern Art Histories in and across Africa, South and Southeast Asia* organized by Cornell University and Dhaka Art Summit.

Jinha Kim

Jinha Kim (b. Seoul) is the director of Namu Artist Space and a specialist in woodcut print. He began his career as a curator at Hankang Museum in 1984. Between 1989 and 1999 he was a chief curator at Namu Gallery, and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Art Consulting Seoul. He has published widely, including *Sang-ku Kim's Woodcut print - back to nature, towards trees* (Hangil Art, 2009), *Modern and Contemporary Woodcut Print 1883-2007: Tree Mirror* (Woorimisu Yeonguso Poom, 2007). He is also a critic and a woodcut artist himself.

참여작가

«민주주의의 봄»

강연균
권승찬
나경택
노순택
미르세아 수치우
박태규
배영환
백승우
오형근
이불
이창성
임민욱
위르겐 베틀람
위르겐 힌츠페터
쿠퍼라티바 크라터 인버티도
팀 서록
홍성담

«항쟁의 증언»

김경주
김병하
김영만
김진수
이강하
이상호
전정호
정희승
조진호
최상호
한희원

편집

우테 메타 바우어
캐슬린 뢰지그
임수영

국문 교정·교열

김수기

번역

이혜림
이수진
이정은

번역 감수

이혜림
캐슬린 뢰지그
임수영

인쇄 및 제본

퍼스트 경일

With contributions from

Spring of Democracy

Yeon-gyun Kang
Seung-chan Gwon
Kyung-taek Na
Suntag Noh
Mircea Suci
Tae-kyu Park
Bae Young-hwan
Seung Woo Back
Heinkuhn Oh
Lee Bul
Chang-seong Lee
Minouk Lim
Jürgen Bertram
Jürgen Hinzpeter
Cooperativa Cráter
Invertido
Tim Shorrock
Hong Sung-dam

A Testimony of Resistance

Kyung-joo Kim
Byeong-ha Kim
Yeong-man Kim
Jin-su Kim
Kang-ha Lee
Sang-ho Lee
Jeong-ho Jeon
Hee-seung Jeong
Jin-ho Cho
Sang-ho Choi
Hee-won Han

Editors of

**Spring of Democracy
booklet**
Ute Meta Bauer
Kathleen Ditzig
Sooyoung Leam

Copy editor (Korean)

Suki Kim

Translation

Eunice Hye-rim Lee
SooJin Lee
Jungyun Lee

Proofreading

Eunice Hye-rim Lee
Kathleen Ditzig
Sooyoung Leam

Printer

First Kyungil

«메이투데이» 커미셔너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민주주의의 봄» 큐레이터

우테 메타 바우어

«민주주의의 봄» 보조큐레이터

캐슬린 뢰지그

«항쟁의 증언» 큐레이터

김진하

«메이투데이» 프로젝트 매니저

박선양

«메이투데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임수영

«메이투데이» 홍보 매니저

문주화

«메이투데이» 그래픽 디자인

일상의실천

«민주주의의 봄»

전시 지원
문경원
함승우
김재희
오영지

«민주주의의 봄»

공간 디자인 자문
레커 건축사무소

«민주주의의 봄» 실행

아트랜스
문화교류연구소
마룬

조명 협찬

에르코

Commissioner, May to Day

Sunjung Kim
President of Gwangju
Biennale Foundation

**Curator,
Spring of Democracy**
Ute Meta Bauer

**Assistant Curator,
Spring of Democracy**
Kathleen Ditzig

**Curator,
A Testimony of Resistance**
Jinha Kim

**Project Manager,
MaytoDay**
Serene Pac

**Project Coordinator
May to Day**
Sooyoung Leam

**PR Manger,
MaytoDay**
Juhwa Moon

**Graphic Design,
May to Day**
Everyday Practice

With assistance from
Moon Won
Seung-woo Ham
Jaehee Kim
Yeongji Oh

**Exhibition Design
Consultancy,
Spring of Democracy**
Lekker Architects

**Exhibition Operation,
Spring of Democracy**
Artrans
C. C. C.
Maroon

Lighting sponsored by
Erco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 출판물의 모든 저작권은
광주비엔날레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학술서적 발췌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문서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해설서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AICIC, AIC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원
NACI ASIA CULTURE CENTER

ASJ C

 5.18 기념재단

 5-18 Archives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5.18 40주년서울기념위원회사무국

